



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시도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현황 분석
-위챗(wechat)을 중심으로-

02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14

1. 정책동향

15

2. 국제교류동향

25

현대중국의 이해

29

덩샤오핑의 복권과 마오의 죽음

30

충남 속의 중국

42

보령 유격장군 청덕비와 명나라 장군 계금(季金)

43

충청중국포럼 소식

47

제35·36회 충청중국포럼소식

48

발간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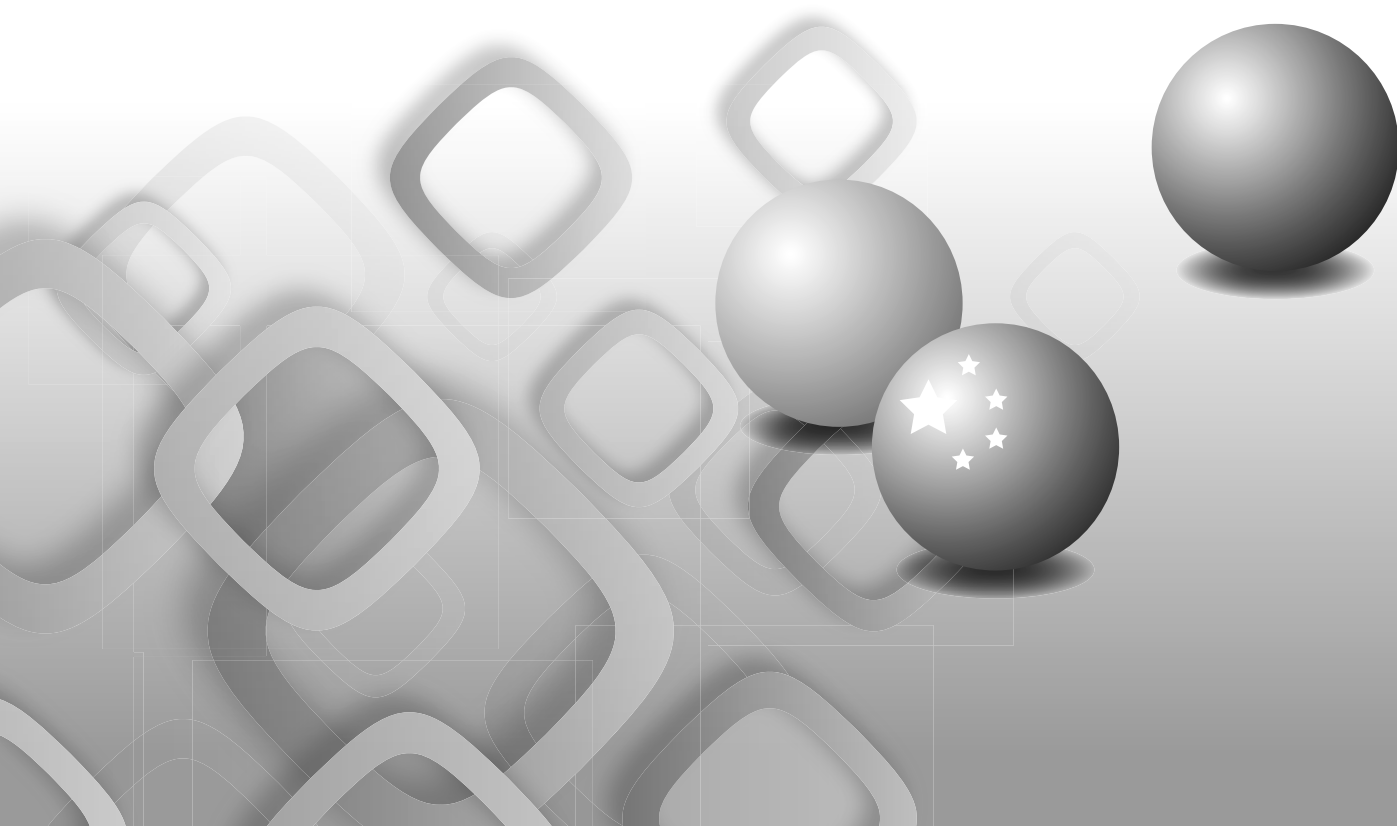
52



시도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현황 분석 -위챗(wechat)을 중심으로-

송영현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플랫폼인 위챗(wechat)은 메신저 기능 뿐 아니라 온라인 간편 결제, 개인 또는 단체의 공식계정 개설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도시 공공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위챗 의존도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국인 중 위챗을 사용하지 않는 중국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자체들도 중국 유커 확보, 지자체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해 위챗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호 이슈와 진단에서는 국내 시도별 위챗 활용현황을 분석해보고, 충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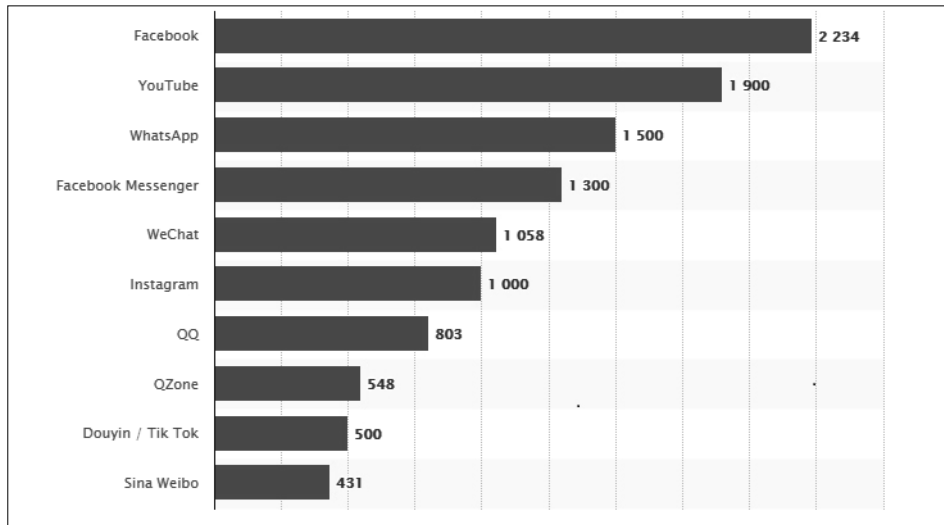
1.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한 위챗(wechat)

- 2010년 평범한 형태의 모바일 메신저로 등장했던 위챗은 8년이 지난 현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종합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18년 10월 기준 월별 활동 이용자수(MAU, Monthly Active User)가 10억 5,800만 명에 달한다.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주요 모바일 플랫폼 중 5위에 해당한다.

위챗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의 월별 활동 이용자수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명실상부한 1위 모바일 플랫폼이다. 부동의 1위 플랫폼이었던 QQ를 제치고 1위로 등극하였다.

- 위챗은 2010년 모바일 메신저 형태로 출범했다. 초반에는 카카오톡(kakaotalk), 라인(line) 등과 같은 단순한 온라인 메신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챗은 단시간에 기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2012년 평여우취안(朋友圈)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공중hao(公眾號)라고 불리는 공식계정을 만들어서 개인과 단체가 손쉽게 자신들을 홍보하고 지식을 전파하며, 상거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14년에는 치예hao(企業號) 불리는 B2B 플랫폼도 만들었다. 치예hao는 공중hao랑 비슷한 형태의 공식계정이나 기업 소속 임·직원 간, 또는 기업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특화된 것이다.

2013년부터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위챗페이(wechat pay)라 불리는



<그림 1> 세계 주요 모바일 플랫폼 순위

자료: the statistics portal(www.statista.com)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위챗의 이용자들이 현금 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지갑이 없고(walletless) 현금이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이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위챗페이로 통해 결제 이외에도 송금, 홍bao(紅包)라 불리는 모바일 용돈주기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웨이상(微商)과 같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확충 역시 주요한 기능이다. 웨이상은 SNS 기능을 기반으로 중국 내에서 모바일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웨이상은 원래 평여우취안에 제품 정보를 올리고 평여우취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점차 거래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들 역시 웨이상으로 활동하



<그림 2> 웨이상 시장규모 발전추세(좌) 및 위챗페이 사용 사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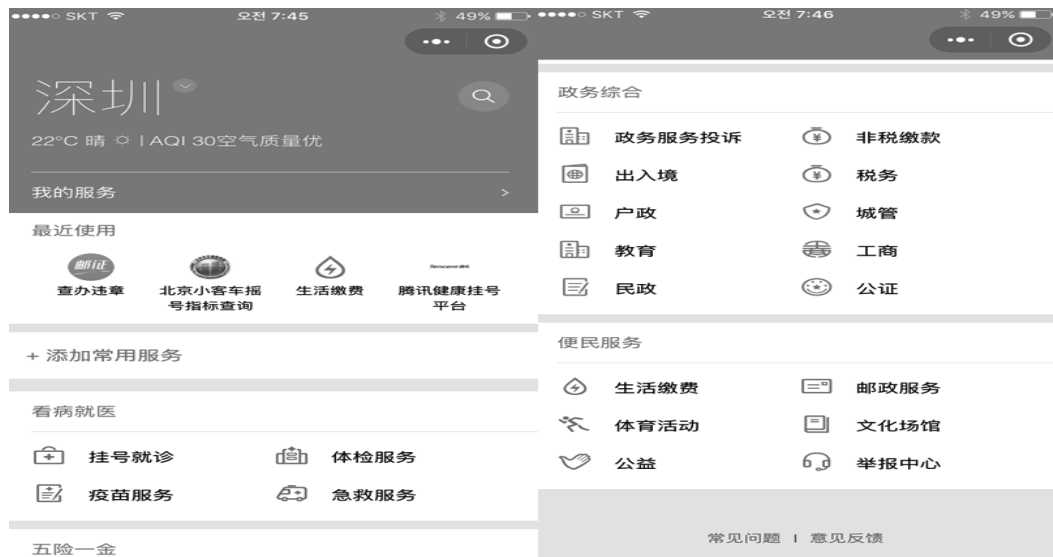
자료: iresearch(2017) 및 baidu 사진자료(검색일: 2018.10.21)

주. 웨이상 시장규모 발전추세 중, 2017년 이후의 수치는 예상치를 의미함.

기 시작했고 B2B형식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224억 위안이었던 웨이상의 시장규모는 2016년 3,287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약 9,8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위챗에 있는 도시공공서비스 기능은 위챗 이용자들에게 사회보장, 교통, 차량, 의료, 법률, 문화, 예술과 관련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을 통해서 전기, 가스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또한 병원 진료예약을 미리 할 수도 있으며 문화예술 공연의 예매 역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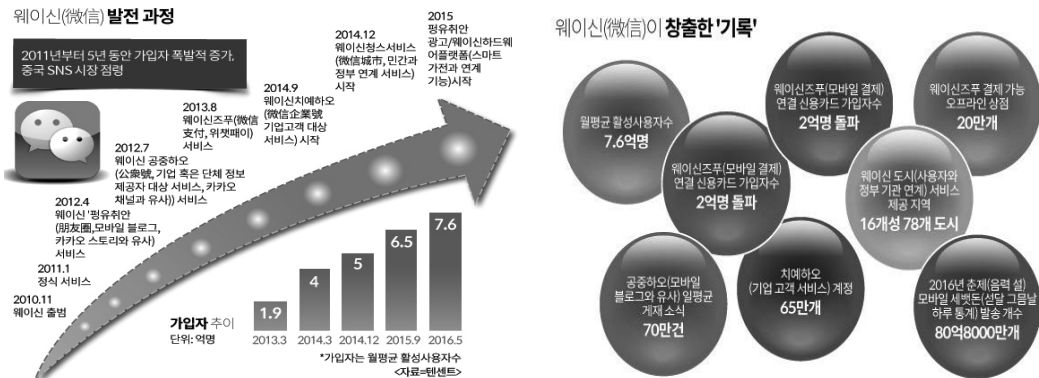
한편, 각 도시마다 제공되는 도시공공서비스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위챗 사용자가 이를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핸드폰에 위치정보만 허용해 놓으면 사용자가 위치한 도시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3> 위챗에서 제공하는 도시공공서비스 현황(선전시 사례)

자료: 저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

중국인들에게 위챗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중국인들은 일상적인 활동의 상당 부분을 위챗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위챗을 활용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위챗에 공중하오를 열고 기관 홍보,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들도 위챗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노력 중이며, 특히 광역지자체들의 위챗 활용이 많은 편이다.



<그림 4> 위챗의 발전과정 및 위챗이 창출한 기록들

자료:뉴스핌(2016.06.24)

II. 국내 시도별 위챗 활용현황 및 특징

- 2018년 11월말 현재, 국내 17개 시도 중, 위챗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시도는 총 10개이다. 대부분 위챗 내 자신들의 공식계정인 공중하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위챗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 소개 및 기업·상품 홍보, 관광지 안내 등에 위챗 공중하오를 활용하고 있다.
경기, 제주, 경남, 전북, 전남은 시도명(名)으로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대구, 광주, 충북은 시도명으로 된 공중하오는 없으나 웨이하이 인천관, 대구·광주·충북 상하이 대표 사무소 공중하오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공중하오를 통해 종합적인 지역소개를 하기 보다는 경북의 여행지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남을 비롯하여 서울, 강원, 세종, 울산, 대전, 부산은 위챗 내에 별도의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시도의 위챗 공중하오는 대부분 지역 소개, 기업 및 상품 홍보, 관광지 소개 등 홍보, 소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공중하오 운영의 적극성, 콘텐츠의 다양성, 운영의 방향성, 운영 주체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의 경우 타 시도 공중하오에 비해 콘텐츠가 상당히 풍부하고 관련소식의 업데이트 역시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지역 소재 기업의 통상교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설립되는 시도의 중국 현지 대표사무소가 시도를 대신하여 위챗 공중하오를 운영하며 지역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중하오 운영이 종합적인 측면의 지역 소개와 홍보를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기업과 상품의 홍보를 주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주 공중하오는 관광지 소개에, 광주와 충북 상하이 대표사무소의 공중하오는 지역 기업 및 상품 홍보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 시도별 위챗 활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 중 위챗 공중하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광역자치체로 경기도를 꼽을 수 있다.

경기의 경우 지역 및 관광지 소개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 및 영화 속의 경기도 소개, 경기도를 주제로 한 만화 연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홍보 중이다.

모든 콘텐츠는 중국어로 제공되며,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아직 대외홍보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콘텐츠가 풍부하고 언어적 접근성이 편리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편이다.

경기도를 알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이 손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Q&A란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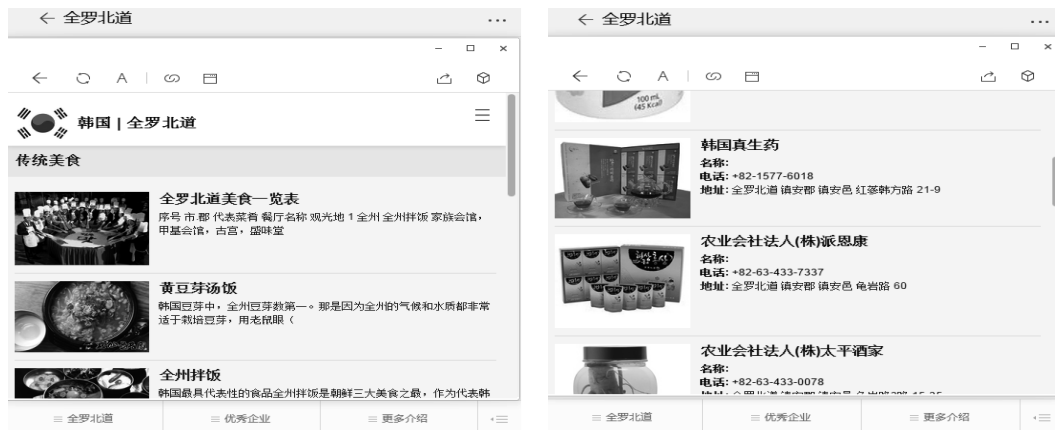
<그림 5> 경기 공중하오 운영 현황(지역소개(좌) 및 질의응답(우))

자료: 저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

- 전북 역시 위챗 공중하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와 마찬가지로 지역 및 관광지, 맛집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도내 우수기업, 대학 역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한다는 점에서는 경기와 유사하나, 지역 우수기업 제품을 품목별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상하이에 있는 대표사무소도 소개하고 있는데, 공중하오 운영의 초점이 상당 부문 기업의 통상교류 지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대학정보 역시 소개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 특히 중국인 학생 모집에 관심이 많은 지역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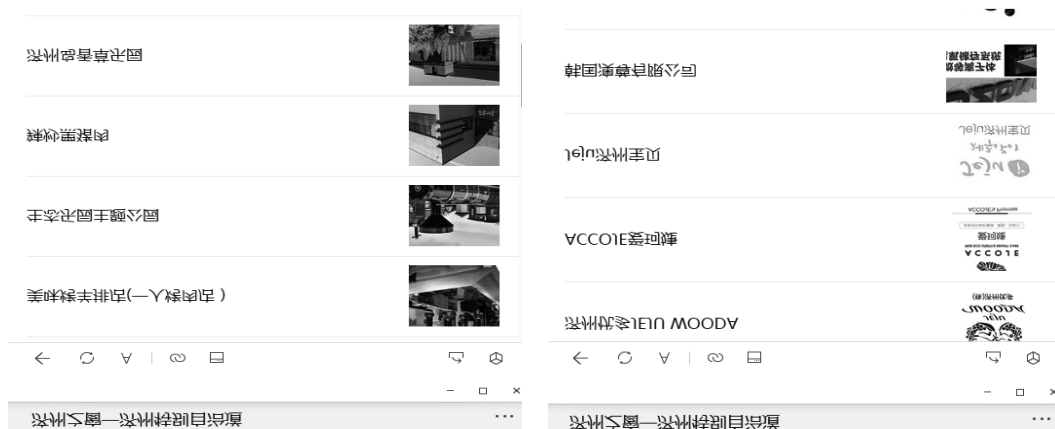


<그림 6> 전북의 공중하오 운영 현황(음식소개(좌) 및 우수기업 홍보(우))

자료: 저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

- 제주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공중하오 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양한 제주 특산품도 소개하고 있다.

제주는 제주의 창(濟州之窗)이라는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공중하오는 크게 제주 여행(濟州之旅), 제주의 상품(濟州之物), 제주의 길(濟州之路)이라는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관광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 상 많은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그림 7> 제주의 공중하오 운영 현황(관광지 소개(좌) 및 우수상품 홍보(우))

자료: 저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

우수상품 역시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제주의 경우 공중하오 자체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주요 관광지의 중문 홈페이지를 링크해둌으로써 공중하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 전남에서 운영하는 공중하오 역시 위에서 언급한 시도들의 상황과 큰 차이는 없다. 경남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로 정보제공이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전남 역시 지역소개, 관광지 및 음식 홍보 등을 하고 있다. 단, 서울과 전남, 서울과 광주 간의 교통수단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웨이보(微博)¹⁾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의 연동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림 8> 전남과 경남의 공중하오 운영 현황(전남·광주-서울 간 교통수단 소개(전남, 좌) 및 웨이보와의 연계방법 소개(경남, 우))

자료: 저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

- 한편, 인천은 웨이하이관이라는 공중하오를, 대구는 상하이 대표사무소라는 공중하오를 운영 중이다.

인천은 2015년 체결된 한중 FTA에 의해 중국 산둥 웨이하이시와 한중 FTA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산둥 웨이하이시에 교류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웨이하이관 공중하오는 이러한 도시 간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다. 주로 양 도시가 개최하는 기업 박람회, 유학 설명회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웨이보는 200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중국의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이다. 2018년 10월 기준 월별 활동 이용자수는 약 4억 3,100만 명이며, 이는 위챗의 40% 수준이다.

한편, 대구는 상하이 대표사무소 공중하오를 통해 여행, 상품, 대구광역시 및 상하이 대표사무소 소개 등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 해외 대표사무소는 지역 소재 기업의 통상교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대구 상하이 대표사무소의 공중하오 역시 유사한 기능을 수행중이나, 고유기능과 관련된 분야 뿐 아니라 대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홍보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9> 인천 웨이하이관(좌)과 대구 상하이 대표사무소(우)의 공중하오 운영 현황

자료:저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

- 광주와 충북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로 상하이 대표사무소라는 공중하오를 운영 중이다. 이들 공중하오는 지역 기업과 상품의 홍보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광주 상하이 대표사무소 공중하오의 경우, 관광설명회, 무역상담회 등의 대표사무소 고유 업무에 대한 소개, 홍보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공중하오를 통해 지역 전반에 대해 간단히



<그림 10> 광주(우) 및 충북 상하이 대표사무소(우)의 공중하오 운영 현황

자료:저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

소개하고 있기는 하나, 운영의 중점은 역시 대표사무소의 고유 업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충북 상하이 대표사무소의 공중하오의 경우 역시 광주의 사례와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충북기업과 제품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공중하오를 운영하는 것이다. 상기 공중하오의 경우 충북의 우수식품, 일용품, 화장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충북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있다.

- 경북의 경우 여행에 초점을 맞춰 공중하오를 운영 중이다. 공중하오를 통해 경북의 관광지, 맛집, 숙소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경북 공중하오의 경우 경북여행이라는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관광지, 맛집, 숙소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공중하오 이용자들에게 여행 관련 혜택을 주기도 한다. 공중하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참신한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단, 공중하오에 관련 소식 업데이트가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관광지, 맛집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가 끊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림 11> 경북의 여행관련 공중하오 운영 현황

자료: 저자가 직접 캡처하여 작성

Ⅲ. 종합 및 시사점

- 지금까지 시도별로 위챗 공중하오의 활용여부 및 내용, 주요 특징을 알아보았다. 2018년 11월 말 현재, 국내 17개 시도 중, 위챗 공중하오를 활용하고 있는 시도는 총 10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 소개 및 기업·상품 홍보, 관광지 안내 등에 위챗 공중하오를 활용하고 있다. 경기, 제주, 경남, 전북, 전남은 시도명으로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대구, 광주, 충북은 중국 현지 대표사무소의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충남을 비롯하여 서울, 강원, 세종, 울산, 대전, 부산은 위챗 내에 별도의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시도의 위챗 공중하오는 일반적으로 지역 소개, 기업 및 상품 홍보, 관광지 소개 등 지역의 홍보·소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단, 공중하오 운영의 적극성, 콘텐츠의 다양성, 운영의 방향성, 운영 주체 등 측면에 있어 시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경기의 경우 타 시도 공중하오에 비해 콘텐츠가 상당히 풍부하고, 관련소식의 업데이트 역시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다. 공중하오 운영의 적극성,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양한 품목별로 지역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중국인 학생 모집에 관심이 많은 지역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소개란을 마련한 전북의 사례 역시 참고할만하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를 다양화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 공중하오는 관광지 소개에, 광주 및 충북 상하이 대표사무소의 공중하오는 지역 기업 및 상품 홍보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여행에 초점을 맞춰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운영의 목적과 방향성이 특화·명확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운영 주체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 제주와 같이 시도명으로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인천, 대구 등과 같이 중국 현지 대표사무소가 공중하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 앞서 이뤄진 분석을 통해 충남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 전북 등의 선도 사례를 참고하여 충남도 위챗의 공중하오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충남을 적극적으로 중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충남은 현재 위챗에 별도의 공중하오를 개설·운영하고 있지 않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서 위챗을 이용하고 있다. 관광, 기업교류, 상품구입 등에도 위챗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같은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급히 위챗을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경기, 전북 등과 같이 도 차원에서 공중하오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공중하오 안에는 충남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 소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해야 할 것이다. 위챗 공중하오를 주로 이용할 중국인들의 수요 역시 반영하여야 한다. 도내 거주 중국인과 관광객, 대중국 수출기업, 중국학생이 많은 대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위챗 공중하오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의 다양한 콘텐츠 마련 사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의 정보를 제공한 전북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중하오의 운영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충남이 중국 현지에 통상사무소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위챗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만약 충남이 중국 현지에 통상사무소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게 될 경우, 위챗의 공중하오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충북과 광주의 사례처럼 충남의 기업과 제품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공중하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즉,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중하오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충남 기업과 상품의 홍보 뿐 아니라, 충남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 또는 바이어들의 DB를 구축하고, 충남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손쉽게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맹선영(2016), 위챗 완전정복 1 - 탄생배경 및 발전과정, 한국패션협회 스페셜 리포트, 한국패션협회.
강소영(2016), 중국민메신저 위챗 영향력 분석(上), 웨이신 중국인의 삶을 변화시키다, 뉴스핌, 6월 24일.
kotra(2018), 2017년 대중수출 평가와 2018년 전망, kotra.
iresearch(2017), 中國微商行業研究報告, iresearch

중국 지방정부 정책 및 교류 동향

▶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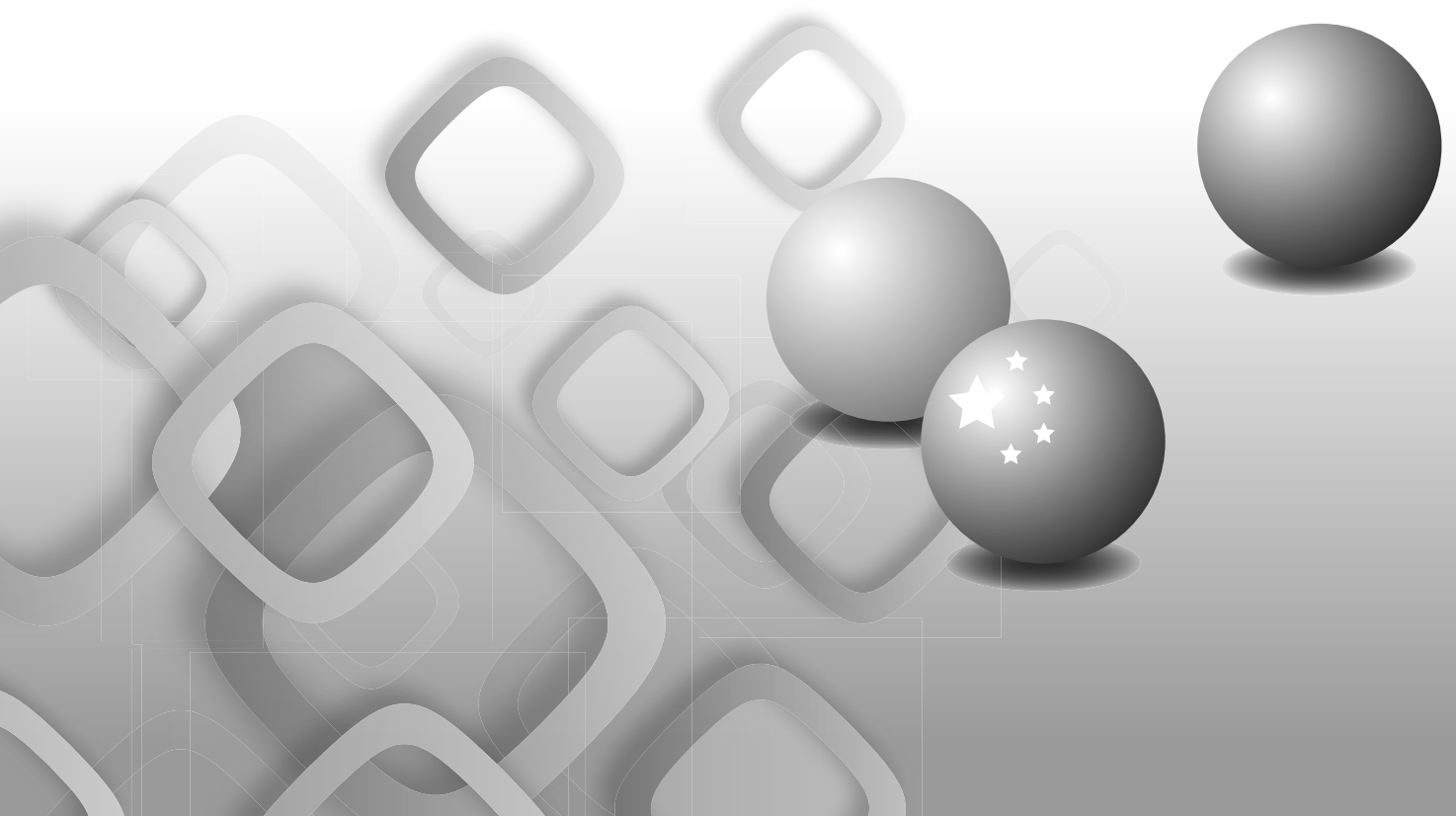
각 지방성정부 한·중산업단지에 새로운 청사진 제시
해외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 활동주(活動周) 전개

▶ 국제교류동향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가 후베이성 우한에서 개최

전춘복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각 지방성정부 한·중산업단지에 새로운 청사진 제시

작년 12월 국무원에서 엔타이한중산업단지, 옌청한중산업단지, 후이저우한중산업단지 지정을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각 지방성정부에서 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올해에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등 각 지방성정부에서도 연달아 한중산업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마침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모두 충남도와 교류 중이며 그 중 광둥성과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어 충남도에서도 대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계획 등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 산둥성 엔타이 한중산업단지
- 총 면적 80.4km²

▷ 장쑤성 옌청 한중산업단지
- 총 면적 50km²

▷ 광둥성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 총 면적 94.1km²

<그림1> 한중 산업단지 분포

자료 : 산업연구원, 중국산업경제브리프(2018. 6)

한중산업단지 추진 경과

- 2014년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2015년 1월에는 한중산업단지 조성 합의안이 반영되었으며 10월에는 중국 국무부와 한국 산업부가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그 뒤 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노력으로 드디어 2017년 12월에 엔타이, 옌청, 후이저우에 한중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국무원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되었다.

산둥성 옌타이한중산업단지 근황

- 산둥성 정부는 2017년 12월 중국 국무부로부터 한중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정식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나섰다. 드디어 지난 11월 14일 『옌타이한중산업단지건설실시방안(中韓(煙臺)產業園建設實施方案)』(이하 ‘옌타이산업단지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은 2025년까지 1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을 유치하고, 미화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대한국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 핵심구(동/서)

- (서) 37.5km²

- (동) 10.4km²

▷ 확장구(동/서)

- (서) 22.5km²

- (동) 10km²

<그림2> 한중옌타이산업단지 구획도

자료 : 옌타이한중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ytckip.gov.cn>)

- 공간계획 : 옌타이한중산업단지 건설 방안에서는 산업단지 공간적 분포를 크게 두 개의 핵심구와 두 개의 확장구로 설계했으며 총 면적은 80.4km²이다. 이는 계획초기 ‘1원 3구’로 구성하고자 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 방안에 따르면 서쪽 핵심구는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동쪽 핵심구는 옌타이과학기술산업개발구에 위치하게 된다. 또 핵심구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 교통, 시설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한국과 전반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신규산업의 발전을 추진시킨다고 한다. 서쪽 확장구도 옌타이경제기술개발구 관할구역에 속하고, 동쪽 확장구는 무핑구친수이한국공업단지(牟平区沁水韩国工业园) 내에 위치한다.
- 중점육성산업 : 옌타이산업단지 건설 방안은 ‘4개 기지, 2개 센터(四基地二中心)’의 중점 발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 전자정보산업생산기지, 신소

재연구생산기지, 고사양설비생산기지, 생명바이오산업센터, 한·중현대서비스융합센터 건설을 제시하였다.

- 그 중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전국 제1호 한국 신재생에너지자동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하였다. 전자정보산업생산기지 건설에서는 주로 스마트가전제품과 고사양 패널, 빅데이터 등 분야의 중점 발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명바이오산업센터 건설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계기업과 합작하여 공동 추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표 1> 옌타이한중산업단지 중점육성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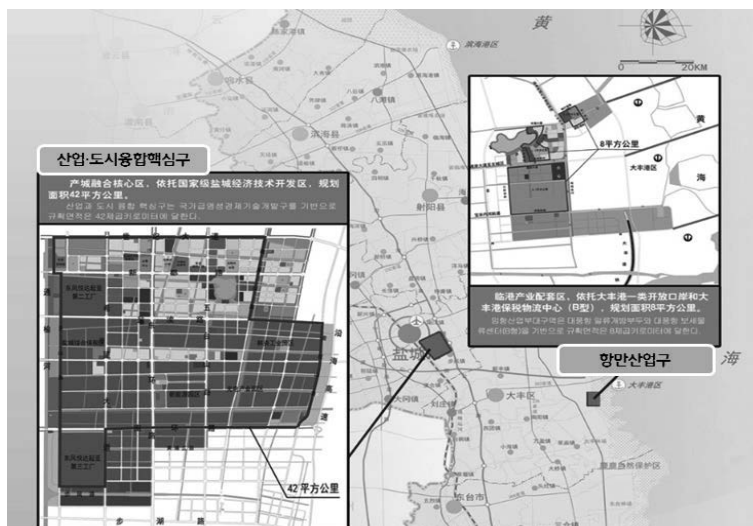
분야	세부계획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부품기업부터 완제품기업까지, 생산부터 서비스를 아우르는 생산기지 조성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생산 ◆ 제1호 한국신재생에너지자동차 기업 유치 목표
전자정보산업생산기지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가전제품, 고사양 패널 등 신기술 제품 제조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산업 발전 추진 ◆ 공업설계, 해양정보관리 등 분야 중점 추진
신소재연구생산기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연구생산기지를 전국 최대 규모로 발전
고사양설비생산기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인쇄, 로봇, 스마트해양설비관측 등 설비 중점생산
생명바이오산업센터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옌타이생물바이오창업센터(煙臺業達生物醫藥創新孵化中心) 등 기관이 한국의 의료기계분야 대표기업들과 공동으로 생명바이오산업센터 건설 추진
한중현대서비스융합센터: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물류, 의료, 교육, 문화 등 서비스업의 융합 촉진 ◆ 특히, 항공항운 노선 증설 및 해외전자상거래물류기지 건설 ◆ 양국 문화관광 분야의 긴밀한 합작 추진

자료 : 魯政字[2018]273號, 中韓(煙臺)產業園建設實施方案

- 외자유치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업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1) 500만 위안 이상의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는 투자금의 10%를 환급하고, 특히 국가급, 성급 녹색제조기업에는 일회성으로 50만 위안 혹은 100만 위안의 상금을 준다. 2) 5000만 위안 이상 투자한 신설기업에도 고정자산투자금의 약 3%를 지원한다. 3) 창업혁신 관련해서 해외 우수인재나 기관은 평가를 거친 후 천만 위안에서 최고 3000만 위안의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쑤성 옌청한중산업단지 근황

- 지난 2017년 12월 중국 국무부로부터 한중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정식 승인을 받은 후 장쑤성 정부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나섰다.
 - 지난 6월에 옌청한중산업단지 총체적인 발전계획을 내놓았고, 9월에는 『옌청한중건설실시방안(中韓(鹽城)產業園建設實施方案)』(이하 ‘옌청산업단지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9월에 발표한 산업단지실시방안은 산업단지 공간적범위, 구체적인 협력산업분야, 사업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옌청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3,730여개이며, 그 중 한국기업은 260개이다. 실제로 미화 26.85억 달러의 외국자본이 투자되었고 그 중 한국자본은 미화 19억 달러에 달한다. 물동량 총액은 205.58억 달러이며 한국과의 거래액은 99.2억 달러이다.



▷ 산업·도시융합핵심구

- 전체면적 42 km²

→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로 건설

▷ 항만산업구

- 전체면적 8 km²

→ 따평항 중심으로 보세물류센터 조성

<그림 3> 한중옌타이산업단지 구획도

자료 : 옌청한중산업단지 홈페이지(<http://www.ycedz.com>)

- 공간계획 : 옌청한중산업단지 총면적은 50km² 이고, 공간적으로는 산업도시융합핵심구(產城融合核心區)와 항만산업구(臨港產業配套區)로 구성된다. 산업도시융합핵심구는 국가급옌청경제기술개발구로 건설될 것이며 면적은 42km² 이다. 항만산업구는 따평항구(大豐港)를 중심으로 면적 8km² 에 달하는 보세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한다.
- 협력산업 : 옌청산업단지 건설 방안에서는 총 5개 산업분야의 협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산업, 전자정보산업, 신재생에너지설비산업, 항만산업, 현대서비스업이다.

<표 2> 엔청한중산업단지 - 중점 추진 한·중 협력 산업

산업분야	세부계획
자동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기술개발 지지, 시장판매 및 수출 확대 ◆ 신재생에너지자동차 수입 적극 추진 ◆ 자동차연구개발, 물류, 금융보험, 문화·창의 등 자동차 관련분야 발전 촉진
전자정보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업종을 도입 ◆ 집적회로, 자동차전자, 소프트웨어 등 핵심산업 중점 육성 ◆ 5G, 인공지능, OLED 등 산업도 적극 추진
신재생에너지설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해양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제조업 ◆ 전 산업의 '신재생에너지+'를 실현해 국가클린에너지기지로 자리매김
항만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평항과 부산, 인천, 평택 등 운항조건을 활용해 고급설비제조, 신재료, 해양바이오, 보세물류창고 등 산업 중점 발전
현대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경제분야, 건강의료산업, 국경간 전자상거래산업 발전 가속화 ◆ 한중수출입물류무역기지 조성

자료 : 蘇政發(2018), 121號, 省政府關於印發中韓(鹽城)產業園建設實施方案的通知

- 사업추진방안 : 엔청산업단지 건설 방안에서는 산업단지 건설의 주요 임무로 기반설비 건설 가속화, 투자기업과 자금의 선별적 선택, 제도적 혁신에 대하여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만금이나 KOTRA와 다양한 분야에서 합작계획을 제시하였고, 기반 건설측면에서는 '한중해외전자상거래항구' 조성, '한중과학기술창업인큐베이팅센터'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3> 엔청한중산업단지 사업추진방안

산업분야	세부계획
기반 건설 가속화	◆ 항공물류단지 건설(국제노선 증설, 한중해외전자상거래항구 건설 등)
	◆ 대외 통로 확대(한국 중요 항구 및 새만금 운항노선 증설, 따평항철로 간선 건설 등)
	◆ 산업단지 기능 정비(자동차마을(智尚汽車小鎮) 조성, 중한2.5산업단지, 항구문화거리 등)
	◆ 무역플랫폼 건설 (KOTRA(엔청점) 유치, 한중무역박람회 추진 등)
	◆ 한중과학기술창업인큐베이팅센터 설립 (미래창조과학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판교테크노밸리 등 합작)
투자기업과 자금 선별적 선택 (擇商選資)	◆ 첨단산업 합작 추진(새만금, KOTRA와 합작, 한국 대기업의 투자 촉진 등)
	◆ 장쑤성과 한국 에너지산업 분야 합작 확장(한국과의 교류를 장쑤성정부 차원의 연간계획으로 승화, 장쑤성 내 기업들이 새만금의 풍력발전, 태양광발전분야에 투자·건설을 촉진)
	◆ 투자유치 체제 혁신(투자유치조직 설립, 새만금산업단지와 공동으로 글로벌기업 대상 투자유치 추진 등)
	◆ 선두산업 강화(세계500강기업의 투자진출 촉진, 국가집적회로투자자금, 신충창업투자자금 조달 등)

제도적 혁신	◆ 투자무역제도의 개혁
	◆ 서비스영역의 점차적인 개방
	◆ 무역 검역 관리서비스 개선
	◆ 해외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 금융개혁
	◆ 고급인재 유인을 위한 서비스 편리화(맞춤형 호구등록, 의료, 자녀학교문제, 배우자 직장문제 등)
인문영역의 교류협작 확장	◆ 문화관광산업의 융합발전 추진
	◆ 직업교육 및 위생분야 협작 강화(양국 교육기관간의 전략적 협작 관계 추진, 전문 의료진 양성 사업 공동 추진)

자료 : 蘇政發(2018), 121號, 省政府關於印發中韓(鹽城)產業園建設實施方案的通知

광둥성 후이저우한중산업단지 근황

- 광둥성 후이저우한중산업단지도 지난 2017년 12월에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단계별 준비 절차를 걸쳐나갔다. 올해 6월 후이저우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광둥성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중국·광둥 - 한국발전교류회’가 개최되었으며, 당일 행사에서 후이저우한중산업단지의 정식 가동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한중산업단지 투자유치분야의 ‘외자유치 10가지 조례’에 대한 설명회에서 신규 프로젝트나 연구개발 특허, 인재유치 등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 기업 유치 분야에서는 신설 외자기업과 신규 프로젝트 유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부여한다고 한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화 천만 달러 이상 투자 및 성실 납세한 한국 기업에는 납세 연도부터 3년간 시, 현(구)에 기여한 부분의 60%를 최고 천만위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기존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는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의 외자이용 시, 또는 기존 사업이 미화 천만 달러 이상 투자규모 확대 시 후이저우시에서 해당년도 실제 투자한 외자금액의 2%를 환급하고 최고 2000만 위안을 지급한다. 3) 산업단지 기입점 기업이 미화 천만 달러 이상 투자 기업을 한국으로부터 유치해오거나 한국으로 건너가 투자할 경우에 적정비율로 환급을 하며 최고 3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4) 그리고 기업 혹은 연구기관이 한국으로부터 첨단기술, 희소성 인재, 정보 등 분야를 유치하되 국내 권위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미화 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금의 적정비율을 환급하되 최고 5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그림 4>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가동식 및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 :東方頭條 (<http://www.ycedz.com>)

- 고급인재 유치 분야는 연구기관의 신규 유치, 발명특허등록, 과학기술 창업에 대해서도 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연구기관 신설 시 최고 2000만 위안, 발명특허건은 건당 최고 9000만 위안을 지급하고 연봉 50만 위안이상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도 한도 내에서 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해외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 활동주(活動周) 전개

대중창업, 만중혁신 활동주 전개

- 지난 2015년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萬眾創新, 이하 ‘쌍창(雙創)』이라는 슬로건을 연설 중에 제시하면서 창업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에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쌍창플랫폼(雙創在線)을 개설하고 같은 해 10월 전국 대중창업만중혁신 활동주(全國大眾創業萬眾創新活動周, 이하 ‘쌍창활동주’)이 베이징에서 가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을 첫 회로 매년 10월에 쌍창활동주를 개최하며, 2016년부터 선후로 선전, 상하이, 청두에서 개최하였다. 매년 쌍창활동주 추진기간에 전국 동시적으로 지역별 활동을 추진해 전국적인 쌍창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그리고 2017년부터는 중국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쌍창활동주를 전개하였다. 그 동안 중국 국내에서 추진해온 쌍창활동이 세계 각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의 신창업 관련 정책들을 알리고 또 국내에서 추진했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해외 쌍창활동주도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까지 미국, 이스라엘, 독일, 호주 등 8개 국가의 15개 거점에서 모두 22차례의 해외 쌍창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림 1> '대중창업만중혁신' 활동 추진 해외국가 분포

자료 : 中國雙創在線

- 2017년에는 이스라엘, 독일, 스페인, 미국에서 쌍창활동주를 개최하였고 마지막 총회는 홍콩에서 개최하였다. 홍콩 총회에서는 중국 쌍창의 시대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를 홍보하는 한편, 홍콩 지역 화교동포들의 교류를 강화시켰다. 미국 팔로알토에서 개최한 해외창업혁신포럼에서는 창업경진대회도 개최하였으며 최고상금은 미화 101만 달러에 달해 노벨상 상금보다 더 많아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 2018년에는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덴마크,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추진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창업천국'이라는 주제로 청두시정부와 텔아비브창업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현지에 청두 - 이스라엘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에 거점을 만듦으로써 현지의 창업열풍을 국내로 유인하거나 현지 기업과 인재들에게 중국에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표 1> 017 - 2018 해외 쌍창(雙創) 활동 주요 추진 내역

추진시기		국가 · 도시	기관	주제(주요내용)	특기사항
2017	9. 6	이스라엘 · 텔아비브	Techcode 엑셀레이터	사회화의 창업정신 (社會化的創業精神)	약 300명 참석
	9. 7	독일 · 포츠담	브란데부르크 혁신 센터	Techcode엑셀레이터 - 브란데부르크 혁신센터 개업식추진	중-독 건강산업 분야에서 창업협작 및 교류
	9. 14-15	스페인 · 마드리	자치대학 콤플루텐세대학	중 - 스페인 창업발전포럼 (中西雙創發展論壇)	기업인 20명 참석
	9. 16	미국 · 팔로알토	스탠퍼드대학	해외창업혁신포럼 개최주제 : 국제창업혁신도시와 창업인재 모임	경진대회 상금 미화 101만 달러
	9. 16	미국 · 댈러스	DFW엑셀레이터 · Foundry Club	해외신유통 · 신과학기술회담 (海外新零售·新科技趨勢峰會)	약 300명 참석
	9. 17	중국 · 홍콩	홍콩대중화창업 및 직업발전센터	창업 업그레이드 및 신동력 육성(雙創促升級, 壯大新動能)	2017 총회
2018	9.2-7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뉴캐슬대학	해외고급인재상담회 3회 개최 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3회 추진	영국과 스위스에 인재추천거점 설립
		스위스 · 취리히/다보스	취리히대학 Greencity 다보스회의중심		
	9. 6	이스라엘 · 텔아비브	텔아비브창업센터	창업천국(創業天府)	청두 - 이스라엘혁신센터 설립
	9.11	덴마크 · 코펜하겐	코펜하겐시, 상해시	중 · 유럽 클린테크놀로지 경진대회 개최 - 총 35개 기업 참여 - 우수기업에 1년간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중국시장에 관심 있는 유럽기업에 기회 제공
	9.25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청화경영창업센터 ATM capital	동남아 창업인재 육성계획(SEAU) 창업아이템경진대회	동남아 과학기술의 거물 육성

자료 : 中國雙創在線 자료 정리

- 해외 쌍창활동주는 현지 창업센터 등 기업 혹은 고등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정책, 중국의 창업환경, 투자지원 및 시장성을 전 세계에 파급하는 효과가 있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창업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 창업아이템경진대회 개최, 해외 인재 모집 등으로 구성되며, 우수한 창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중국 진출 기회나 투자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림 2> 2018 해외 대중창업, 만중혁신 활동주 홍보 포스터(좌), 해외 활동 사진(우)

자료 : PNP창업센터, 中國雙創在線

전국에 창업시범기지 총 120개 조성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중점 추진하는 쌍창활동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전역에 창업시범기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2018년 12월 기준 중국 전역에 총 120개의 창업시범기지가 조성되었다. 창업시범기지는 구역시범기지(區域示範基地), 기업시범기지(企業示範基地), 대학·연구기관시범기지(高校和科研基地示範基地) 등으로 나뉜다.
- 중국 성·시 중에서 창업시범기지가 많이 집중된 지역은 베이징시와 저장성이며 각각 12개와 8개로 상위권에 랭크되며, 다음으로는 랴오닝성, 광둥성, 푸젠성, 장쑤성, 허난성, 쓰촨성 등 순이다. 2016년 5월 첫 회 창업기지 지정 및 조성 시 총 28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다음해에 추가로 92개의 창업시범기지를 조성해 현재까지 중국에 총 120개의 창업시범기지가 조성된 셈이다.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후베이성 우한에서 개최

- 2018년 11월 16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우한시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中國國際友好城市大會)'가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 올해의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에는 국내외 총 700여명의 지역대표가 참석하였는데, 해외에서는 세계 60여개 국가의 125개 성·시와 35개 기관에서 참여하였고, 중국 국내에서는 115개 성시에 서 참석하였다.



<그림 1>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개막식 사진(좌)과 각 도시들의 수상사진(우)

자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www.cpaffc.org.cn/)

- 이번 대회는 인류운명 공동체와 지방정부 발전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대회는 『발전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상호합작을 심화하자(共享發展機遇、深化互利合作)』라는 주제 하에 '현대화', '국제화', '생태화' 3개 세션으로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호도시들 사이에 서로 우수한 경험을 교류하고, 더 나아가 비즈니스분야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폐막식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 국제도시들의 우호교류에 대해 평가하고 상을 발급하였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새로 우호관계를 맺은 도시도 있었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우호교류협력상과 국제우호도시특별공헌상 등 두 가지 상을 수여하였다.

- 우호도시교류협력상은 중국 지방성·시와 우호교류관계에 있는 해외 도시(성·시)와, 중국 국내 성·시 중에서 우호교류에 증진하고 공헌을 많이 한 도시에 주는 상이다. 올해 한국지 방정부 중에서는 전라남도, 세종시, 시흥시, 진주시, 경산시가 상을 받았다.

<표 1> 2018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수상 내역

명칭			지역
우호도시교류협력상	해외	해외기타	독일 바이에른주, 호주 브리즈번시, 일본 후쿠오카, 이스라엘 헤이파, 남아프리카 림포포주 등 78개 성·시
		한국	전라남도, 세종시, 시흥시, 진주시, 경산시
	중국국내		톈진시, 산시성(山西省), 창사시 등 40개 성·시
국제우호도시특별공헌상			장쑤성, 광둥성, 허난성, 우한시

자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www.cpaffc.org.cn/)

- 같은 기간에 중국국제우호도시경제무역협약대회도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업무협약체결식을 추진하였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전체 21개 항목에 걸쳐 총 1398.9억 위안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체결 분야

- 자동차 부품
- 생명바이오
- 에너지환경
- 국제물류
- 신유통
- 문화교육 등

<그림 2> 2018국제우호도시경제무역협약대회 현장 사진

자료 : 동팡터우티아오(东方头条, http://mini.eastday.com)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개요

-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는 중국 내에서 우호도시와 연관된 가장 권위 있는 회의이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대회는 2008년을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제6회를 개최하였다. 개최도시는 선후로 베이징, 상하이, 청두, 광저우, 충칭, 우한이다.



<그림 3> 2008중국국제우호도시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연설 사진(좌)과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우)

자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www.cpaffc.org.cn/)

-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개최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우호교류를 추진 중인 해외 지방정부, 국제교류 관련 조직 및 국내외 교류분야 종사자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 업무성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서로 우수한 경험을 배우기도 하면서 모두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안을 탐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도시들과 세계 여러 나라 우호도시간의 교류를 심화시켜 중국 지방도시들의 국제교류 수준을 발전시키고자 함이기도 하다.

<표 2> 중국국제우호도시대회 개최 경과 (2008-2018)

회차 / 개최시기	개최도시	개최규모
제1회/ 2008. 11	베이징	약 500명 참석 - (해외) 35개 국가의 77개 성·시 및 단체 - (중국) 30개 성·시의 50여개 기관 및 단체
제2회/ 2010. 9	상하이	약 600명 참석 - (해외) 47개 국가의 427명 대표 - (중국) 31개 성·시의 144여명 대표

제3회/ 2012. 11	청두	약 720명 참석 - (해외) 49개 국가의 95개 성·시 및 단체 - (중국) 90개 기관 및 단체
제4회/ 2014. 9	광저우	약 600명 참석 - (해외) 56개 국가의 277개 기관 및 단체
제5회/ 2016. 11	충칭	약 600명 참석 - (해외) 56개 국가의 195개 성·시 및 단체 - (중국) 107개 성·시 및 단체
제6회/ 2018. 11	우한	약 500명 참석 - (해외) 60개 국가의 160개 성·시 및 단체 - (중국) 115개 성·시 및 단체

자료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www.cpaffc.org.cn/), 바이두백과(百度百科) 자료 정리

참고자료

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

中國煙臺政府門戶網站, www.yantai.gov.cn
 煙臺中韓產業園, www.ytckip.gov.cn
 中國鹽城鹽城政府網官網, www.yancheng.gov.cn/
 中韓鹽城產業園, www.ycedz.com/zhcyy
 惠州市人民政府, <http://www.huizhou.gov.cn>
 中韓惠州產業園, <http://ckip.huizhou.gov.cn>
 中國雙創在線, m.cyzx.org
 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http://www.cpaffc.org.cn>
 東方頭條, <http://mini.eastday.com>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기사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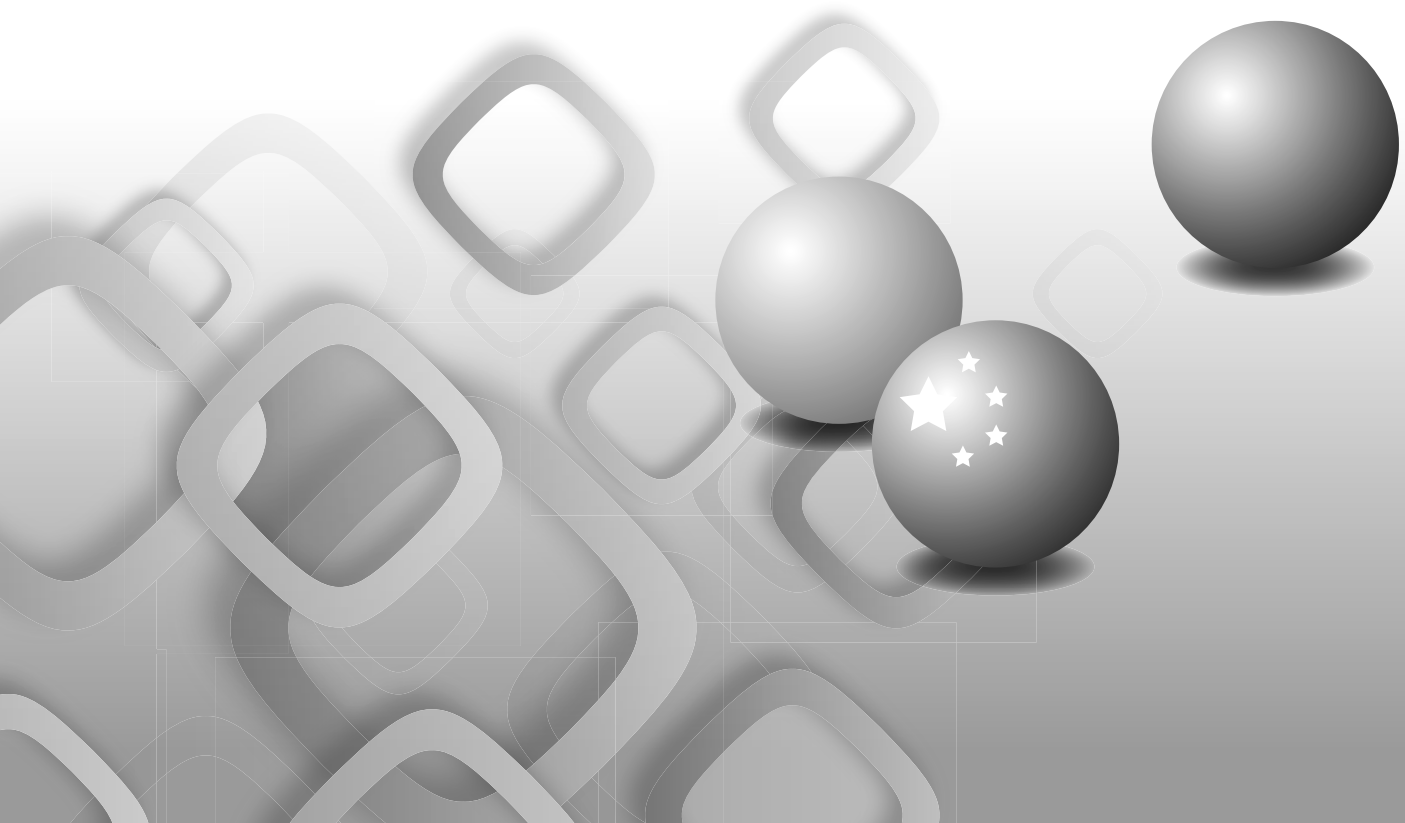
中韓(鹽城)產業園繪就發展“新藍圖”, (검색일 : 11. 5)
<http://news.jstv.com/a/20181027/1540694498555.shtml>
 中韓(惠州)产业园启动将打造粤港澳大湾区外经贸合作平台, (검색일 : 11. 10)
http://www.gd.gov.cn/gdywdt/dsdt/content/post_100957.html
 2018中国国际友好城市大会武汉召开 我省获“国际友好城市特别贡献奖”, (검색일 : 12. 01)
http://wb.jiangsu.gov.cn/art/2018/11/20/art_326_7886238.html
 中國雙創活動周走進美國波士頓, (검색일 : 12. 10)
<http://tech.qianlong.com/2018/1012/2876177.shtml>
 培育十大特色产业 中韓(烟台)产业园又有新消息, (검색일 : 12. 20)
http://www.sohu.com/a/280548509_755878



덩샤오핑의 복권과 마오의 죽음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덩샤오핑의 복권

“9.13 사건”은 마오쩌둥 개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그 영향으로 쇠락해 가던 마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자신이 기획 발동한 문화혁명과정 중 수 많은 방침과 조치들을 제시했고 그중에서도 린바오를 후계자로 지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이었다. 그런 린바오가 쿠데타를 기도하다 발각되어서 국외 탈출을 기도하다 사망했으니 이것은 “위대한 영도자 마오쩌둥”이 단순히 사람을 잘못 보고 등용했다는 선을 넘어서 “문화대혁명” 이래 전반적인 노선과 방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연관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국 인민들이 “위대한 영도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당과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내 매체들은 이 사건 후에도 “린바오의 반당, 반혁명 군사정변 기도를 사전에 제압한 것은 마오쩌둥 사상의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 운운하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그 따위 말은 마오쩌둥 자신도 이해가 안되는 말이었고, 그런 식으로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마오 자신이 스스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마오의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점은 린바오 집단이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소위 “571 공정기요”문건에서 자신의 성격과 의도를 훤히 들여다 보며 꿰뚫고 있듯이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이 포장하고 호도하고 있던 소위 “문화대혁명”의 성격과 실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듯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문건 내용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천재론”을 입에 달고 다니고,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부추기고 선도하던 린바오 집단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마오쩌둥은 자신이 기획 발동한 후, 봉건시대 황제를 능가하는 막강한 독재권력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문화대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자신의 의도와 계획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뒤돌아 보면서 1인 독재체제를 굳힌 후 심해진 독선과 오만함에 대해서 어떤 형태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무튼, “9.13 사건” 이후 급속하게 의기소침해지고 신체건강 상태도 악화된 마오쩌둥이 옛 동지인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에게 당중앙의 일상 업무를 주재토록 하고, 예젠잉(卞劍英, 1897-1986)에게 중앙군사위원회 업무를 주재토록 한 것은 중국공산당 역사와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즉, 당중앙과 국무원, 외교 방면의 업무는 저우언라이가 주재하고, 군대 관련 업무는 예젠잉이 주재하고 주요 문제 토론시에는 총리인 저우언라이가 참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문화혁명 관련 업무는 장칭을 중심으로 하는 왕홍원(王洪文), 장춘차오(張春橋), 야오원위안(姚文元)이 담당하는 권력분담구도로 되었다. 즉, 1971년 “9.13 사건” 이전에는 린바오 집단과 장칭 집단이 다투던 권력투쟁 구도가 (린바오 집단이 몰락한 후에는) 저우언라이와 예젠잉을 대표로 하는 혁명 1세대 원로 집단과 장칭을 대표로 하는 문혁 주도 세력 간 권력투쟁 구도로 바뀌었다. 저우언라이는 이 같은 국면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문혁과정에서 파괴된 경제, 정치, 조직, 외교 등 영역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혁 과정에서 숙청된 혁명 1세대 원로간부들을 사면, 복권시키는 데

주력했다.

우선 1967년 “2월 역류”¹⁾등 에 연관되어 문혁과정에서 름바오 집단과 장칭 집단에 의해서 모함 당하고 숙청 당했던 천원(陈云, 1905-1995), 뤼루이칭(罗瑞卿, 1906-1978), 탄전린(谭震林, 1902-1983) 등이 복권 또는 복직되었고, 문혁기간 중 박해 속에 죽은 허룽(贺龙, 1896-1969) 등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1972년 1월 6일, 천이(陈毅, 1901-1972)가 병으로 사망한 후, 1월 10일에 베이징 시산(西山)의 바바오산(八宝山) 혁명공공묘지에서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천이의 옛동지 등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난 혁명 1세대 원로들은 모두 문혁 발발 이후 저마다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어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침통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마오쩌둥이 조문하러 온 것이었다. 흰색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상태였다. 마오는 징강산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해 온 옛 전우이자 부하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 정중하게 세번 허리 숙여 절했다. 그리고 천이의 부인 장첸(张茜, 1922-1974)을 위로하며 말했다. “천이 동지는 좋은 사람이었다. 공도 많이 세웠다”, 그리고 저 우언라이와 예젠잉 등 둘러선 사람들에게 “만일 름바오의 음모가 성공했다면 여기 우리들은 모두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덩샤오핑에 대해서도 말했다. “덩샤오핑은 류샤오치와는 다르다. 인민 내부의 모순이다.” 저우언라이는 마오의 이 말의 중요성을 즉각 간파하고, 그후 이 말을 적극적으로 전파시키면서 덩샤오핑의 복권과 재등용 추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서 1월 하순에는 장칭과 야오원위안도 배석하고 외국 손님단체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림바오는 적과 아군의 모순이지만, 덩샤오핑은 인민 내부의 모순이라는 게 주석의 뜻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겠다는 듯이 말했다.



<사진 1> 천이(陈毅) 추도식, 마오쩌둥과 장첸(1972.1.10)

당시에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배려로 류샤오치와는 달리 당적은 박탈 당하지 않은 채 장시성(江西省) 난창 신젠현(新建县) 왕청강(望城岗) 마을에 있는 트랙터 수리공장에 하방되어서 노동하고 있었다. 저우언라이의 세심한 배려와 지시로 옛 푸저우 군구(福州军区) 난창(南昌) 보병학교 부지안의 원래 그 학교 교장 관사로 썼던 2층 주택에 배치되어 생활하고 있었다. 덩 부부와 집안 일을 돕는 덩의 계모는 덩부부가 노동하

1) “2월 역류”란, 1967년 1월19일-20일 중공중앙군사위원회 회의와 2월 중순에 중난하이 화이런탕(怀仁堂)에서 개최된 두 차례 정치국 회의에서 탄전린(谭震林), 천이(陈毅), 예젠잉(叶剑英), 리부춘(李富春), 리선니엔(李先念), 쉬상첸(徐向前), 니에룽전(聂荣臻) 등이 “문화대혁명”의 착오에 대해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름바오(林彪), 강성(康生), 천보다(陈伯达), 장칭(江青), 장춘차오(张春桥), 시에푸즈(谢富治) 등에 대해 견결하게 투쟁하다 문혁을 옹호하는 마오쩌둥에게 “二月逆流”라 질책 받고 숙청된 사건을 가리킨다.

는 공장으로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덩샤오핑이 “9.13 사건”관련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건 문혁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불구자가 된 자신의 큰 아들 푸팡(鄧朴方)으로 부터였다. 문혁 발발 당시 푸팡은 베이징대학 물리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중앙문혁소조로부터 류샤오치에 이어서 소위 “당내 제2 주자파 대표”로 불리는 아버지 덩샤오핑에 대한 트집거리를 잡아내려는 베이징대학 홍위병들에게 감금 당한 상태에서 혹독한 심문과 폭력에 시달리던 중 심문당하던 학교 건물 4층에서 투신했고 그 결과 허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살아 남기는 했으나 병원마다 “제2 주자파의 아들”의 입원과 치료를 거부해서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하반신 마비가 굳어진 상태로 베이징 시내의 복지병원을 전전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 덩샤오핑이 중공중앙 관공청을 통해서 마오쩌둥에게 탄원해서 뒤늦게 치료를 받았고, (“9.13 사건” 발발 직전) 1971년 6월에는 장시성 신젠현의 부모 거처로 와서 부모와 누이 동생의 보호를 받으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장애로 인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주로 집에서 보내야 했던 푸팡은 집안에 있는 고급라디오가 단파라디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후 매일 이 라디오를 이용해서 국외의 단파방송 방송을 듣고 있었다. 그러던 푸팡이 9월 중순 어느날 단파라디오의 해외방송에서 “중국 비행기가 몽골인 민공화국 초원에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후 며칠간 계속 그 사고와 관련한 보도와 함께 “아마도 중국 국내에 중요한 사건과 연관된 것 같다”는 추측 보도와 해설 등도 듣게 되었다. 푸팡은 이 일을 즉시 자신의 부친에게 알렸다. 그러나 당시에 덩샤오핑은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시 며칠 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이었다. 그러나 이 해 국경절에는 매년 성대하게 거행하던 기념 행사가 취소되었다. 또한 국내 매체들의 국경절 관련 보도에서도 예년 같으면 의례이 곳곳에 마오쩌둥과 같이 등장하던 권력서열 제2인자인 린뱌오 관련 동정이나 보도 사진 같은 것조차 일체 없었다. 이같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고 푸팡이 가족들에게 “린뱌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말했지만 이때에도 덩샤오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고 한다.

덩샤오핑이 공식경로를 통해서 “9.13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때는 사건 발생 후 거의 두 달이 되어 가는 11월 6일에 공장 당위원회로부터 당중앙에서 온 문건 전달이 있으니 덩부부도 그 내용을 들으러 공장으로 오라는 통지를 받은 날이었다. 비록 당적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장시(江西)에 하방되어 온 후에 이처럼 중앙이 전달하는 문건 내용을 들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기는 처음이었다. 덩샤오핑 부부가 공장에 도착하여 약 100m² 가 넘는 넓이의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80여명의 직공 전원이 촛촛이 앉아 있었다. 현위원회 공업국장과 앞자리에 앉아 있던 공장 지부 위원회 주임 뤼펑(羅朋)이 덩샤오핑 부부에게 말했다.

“라오뎡(老鄧)은 귀가 잘 안들리니 앞자리로 와서 앉으시오”

덩샤오핑 부부가 앞자리로 가서 앉은 후 시작된 “린뱌오 반역 탈주 통지(林彪叛国出逃的通知)”라는 제목의 중앙문건 낭독 전달이 2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낭독 전달이 끝난 후 작업조별

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신의 작업조 노동자들이 토론하는 걸 묵묵히 듣고 있던 덩샤오핑 부부에게 톈핑 주임이 “라오덩(老邓) 부부는 문건을 가지고 집에 가서 보라”고 배려해 주어서 부부는 오후 1시반 경에 귀가했다. 당시 집에서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부모를 맞이한 딸 덩룽(邓榕, 1950-)의 회고에 의하면,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 줘린(卓琳, 1916-2009)에게 덩룽이 근심스럽게 중앙문건 내용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줘린은 딸의 손을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딸의 손바닥에 “린바오가 죽었다(林彪死了)”고 써 주었다. 당시 이들은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다. 덩룽은 손바닥 감각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차린 직후 마치 온 몸의 피가 머리로 몰려 오는 것 같은 흥분과 감격을 느꼈다고 한다. 덩룽은 즉시 오빠 푸팡의 방으로 가서 누워있는 오빠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푸팡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흥분으로 옷몸을 떨떡였다고 한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2층 덩부부의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아 건 후에 정식으로 함께 기쁨과 감격을 나누었다. 덩룽은 중앙 문건의 내용을 상세히 전해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솟아 나오는 걸 억제하지 못했다. 덩샤오핑은 의자에 앉지 않고 계속 선 채로 담배를 피우면서 가족들을 말없이 바라 보고 있었으나, 이때에는 그도 평소와 달리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말이 없는 덩이 이때는 한마디 했다고 한다. “린바오가 죽은 건 하늘의 이치이다(林彪不亡, 天理不容)”

흥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한 덩은 이틀 후인 11월 8일에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썼다. 덩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편지였다. 문혁 발발 후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마오쩌둥과 대화를 나눈 후 그가 마오쩌둥에게 직접 편지를 쓴 적은 없었다. 정치권 가정일이건 모든 일을 당시 중앙판공청(中央办公厅) 주임 왕동싱(汪东兴)에게 편지를 쓰거나 마오쩌둥에게 쓰는 편지도 왕동싱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 마오쩌둥 본인에게 편지를 썼다. 첫째, 린바오 멸망이라는 사건이 중대했고, 둘째, 그는 타고난 정치적 본능으로 이것이 자신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쓴 주요 내용은, 우선, 당중앙이 린바오 반당(反党)집단의 음모를 이처럼 빠르게 포착하고 제압한 것은 당을 위험에서 구한 위대한 승리이고 경축해야 할 일이므로 당의 결정을 전격히 옹호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활 상황 등을 보고했다. 즉, “저는 주석의 배려하에 장시(江西)에 온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 2년간 저는 매일 오전에 공장에 가서 노동을 했고 오후와 저녁에는 책과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고, 일부 가사노동을 하고, 공장에 가는 것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고 외부와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주석의 지시를 준수하여 노동과 학습을 통해 스스로 자아 개조를 위해 노력했고, 친척 외에는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조직의 배려로 인해 아무런 곤란도 없습니다.”

이어서 다시 명확하게 쓰기를, “저 개인은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만, 오직 어느 날 당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일부 기술적 성격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건강이 좋은 편이라 몇 년 더 일하고 싶습니다. 매일 신문 지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국내 건설 성과와 국제적 지위 상승을 보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할 기회를 통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끝으로, 그는 자신의 자녀들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아직 어린 두 아이, 막내 딸 마오마오(毛毛)와 둘째 아들 페이페이(飞飞)입니다. 막내 딸은 산시성 북부(陕北) 농촌에 배치된 지 이미 3년이 되었는데, 현재 집에서 돌보고 있는 장애인 큰아들을 돌보기가 갈수록 힘들어져서 딸 아이를 집에 오라 해서 오빠를 간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딸 아이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독학을 통해서 약간의 기초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페이페이는 산시(山西)의 생산대에 들어 간지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저와의 관계 때문에 제 아이들도 성분이 좋지 않아서 조직상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비교적 좋은 분배를 받기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부의 나이가 많아서 자녀들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일하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분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고정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딸 아이가 의학을 공부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이런 것들은 저의 마음 한 구석 걱정일뿐이지만 주석께 보고드리는 김에 함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응당 조직의 고려와 처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향후 중앙과의 연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과거에 주석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왕동싱(汪东兴) 동지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초에 저의 큰아들의 일로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장시성 위원회의 담당자가 저에게 다시는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해서 11개월간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이 있을 경우에 계속 왕동싱 동지에게 편지를 써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 부분에 “충심으로 주석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주석의 건강장수가 바로 전당 전국인민의 행복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썼다.

이 한통의 편지는 이후 덩샤오핑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편지가 되었다. 덩샤오핑은 이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몰랐고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지만, 하방 이후의 경험을 통한 감각으로 이 편지가 마오쩌둥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덩의 기대와 예상대로 이 편지는 마오에게 전달되었다. 편지를 본 후에 마오가 왕동싱에게 물었다. “자네 어떻게 이렇게 무심했나?” 그리고, 덩이 보낸 편지 겉봉에 “정치국에 인쇄 배부하고, 그의 가정 일은 왕동싱이 처리”라고 썼다.

마오쩌둥은 덩샤오핑의 재능을 중시했기에 언젠가 다시 등용할 때



<사진 2> 장시성 하방 시절의 덩샤오핑 부부와 계모

에 그가 자신에게 당한 박해보다는 자신이 그의 자녀 등 가족에게 베푼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었고, 덩샤오핑은 이 같은 마오의 심리를 적절히 이용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덩샤오핑은 이러한 기후와 바람을 타고 1973년 3월에 복권되어 다시 베이징의 중앙 정치무대에 복귀하게 된다. 1973년 2월 22일, 덩부부와 가족이 장시성 신젠현의 거처를 떠나서 난창역(南昌站)에서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 도착 후, 마중 나온 차를 타고 베이징의 거주지에 도착했다. 그날 저녁에 중앙판공청 주임 왕동싱이 덩샤오핑을 찾아왔다. 덩이 그동안의 배려와 도움에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자 왕동싱은 “나는 마오주석의 분부대로 시행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후 덩샤오핑의 역할과 임무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1973년 3월에 국무원 부총리에 임명되었고²⁾, 8월에 개최된 중공 제 1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공 중앙위원으로 당선되고, 12월에는 중앙정치국 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또한 1974년 4월에는 중국정부 대표로 유엔 제6차 특별회의에 참석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마오쩌둥의 “3개 세계(三个世界) 구분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즉, “세계는 제1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 제2세계인 일본, 유럽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그리고 제3세계인 기타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중 제1세계의 두 국가가 오늘날 최대의 국제적 착취자이자 억압자이고, 이 중에서도 사회주의 간판을 달고 과시하고 있는 초강대국이 특히 더 사악하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은 단결하여 맞서야 한다.”고 했다. 이는 흡사 마오쩌둥이 젊은 시절에 중국 농촌에서 혁명투쟁을 추진할 때에 농촌 주민을 지주와 부농, 중농, 그리고 빈농과 고농으로 구분하고, 빈농과 고농을 선동하고 중농을 포섭하여 지주와 부농을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구도를 국가간 국제관계에 그대로 대입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 회의 참석중이던 소련의 외무부 장관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중공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공공연하게 소련을 비난한 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중국 대표의 연설 내용은 “노동계급의 대의명분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난했다.

연설 후 4일 후에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덩을 위해 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만찬을 주최했고, 덩은 키신저와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마오타이주를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도중에 덩은 키신저에게 “당신들과 함께 북쪽에 있는 곰(러시아)의 버릇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키신저는 대화 도중에 자주 자신의 수행원들을 쳐다 보면서 지원을 구하는 듯한 덩의 모습을 보면서, 덩이 추방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입지가 불안하거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고 현재 또 다시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의명분을 고수하고 있는 이 우울한 눈빛의 용감하고 작은 인물”에 대한 견해와 평가가 바뀌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회의와 접견 등으로 꽉찬 일정 때문에 뉴욕에 머무른 9일간 덩은 이 도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다. 리무진에 앉아서 이동 중에 차창 밖 거리 풍경을 보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귀국 길에는 그가 젊은 시절에 독학하고, 노동하고, 공산당에 입당 및 활동했던 프랑스 파리에 들러서 하루 반 나절을 머물렀다. 파리에서 덩은 공식 일정을 최대한도로 줄였다. 70세를 앞둔 나이에 젊

2) 1973. 3.10: 关于恢复邓小平同志的党组织生活和国务院副总理的职务的决定

은 시절의 추억이 깃든 파리의 거리들을 둘러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추억의 장소들은 이미 대부분 변해 있었다. 그는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출장경비중 자신이 쓸 수 있는 돈(미화 16달러)을 주고 크루아상과 치즈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파리에서 지내던 젊은 시절에 용돈을 아껴서 매우 맛있게 먹던 달콤하고 바삭바삭했던 그 맛을 생각하고 귀국 후 그 시절 이 도시에서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옛 동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파리에서 처음 만난 후 형제처럼 지내왔으나,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는 형과 같은 저우언라이를 생각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덩의 돈 16달러에 슬그머니 돈을 더 보태어서 크루아상 200개와 빅사이즈 치즈 모음을 사서 주었다. 덩이 만족하여 고맙게 받았다. 귀국 후에 저우와 옛 동지들에게 이 선물을 전했을 때, 옛동지들이 보인 기쁨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무렵 마오는 자신이 주도하고 조작한 문화대혁명의 의의와 역사적 평가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문혁으로 인해 초래된 경제문제들을 조속히 해결 및 회복해야 한다는 걸 인식하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책임자로 덩샤오핑을 선택했다. 이 선택은 자신이 상하이에서 불러 들여서 부총리로 기용한 왕홍원(王洪文)에 대한 실망 때문이기도 했다. 1974년 10월에 마오는 왕홍원에게 덩샤오핑을 제1부총리로 임명하여 저우언라이가 하던 당과 정부의 일상업무를 맡기겠다는 뜻을 통고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5년 1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한 조각에서 덩샤오핑을 중공중앙 부주석과 국무원 부총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그리고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 임명했다. 마오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예젠잉(叶剑英, 1897-1986) 원수의 건의가 중요한 작용을 했다.

이리하여 병상에 누워 있는 저우언라이(周恩来) 총리를 대신하여 덩샤오핑이 당정과 군대의 일상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덩은 마오쩌둥의 지지 하에 당과 국가, 그리고 군대의 일상업무를 주관하면서, “문화대혁명”이 조성한 혼란 국면에 대해 전면적 정돈을 추진했다. 먼저 예젠잉 원수와 함께 군대내의 파벌주의, 특히 간부들 사이의 파벌주의 혁파를 추진했고, 매우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던 철도 수송 분야와 철강 생산문제를 정돈했다. 그리고 국방산업과 교육, 문화 및 과학기술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정돈도 진행하면서 회담, 집회,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환기 시켰다. “이제 혁명에서 생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떤 동지들은 혁명은 대담하게 해야 하지만, 생산 촉진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철저히 잘못되었습니다.” 또 “지도부는 파벌주의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표명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덩샤오핑이 추진한 각종 정책들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 인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를 얻었다. 덩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해 줄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원 내에 정치연구실을 만들고, 후차오무(胡乔木, 1912-1992)를 중심으로 우령시(吴冷西, 1919-2002), 후성(胡绳, 1918-2000), 덩리첸(邓力群, 1915-2015), 위광위안(于光远, 1915-2013) 등으로 구성된 6인 소조가 운영토록 했다. 덩이 이 연구실을 당 중앙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무원 소속으로 한 것은 당시 중앙위원회 일상업무를 4인방의 일원인 왕홍원이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5년 4월 18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김일성을 맞으러 후난성(湖南省) 창사(长沙)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온 마오쩌둥이 김일성에게 한 아래와 같은 말에서도 덩샤오핑에 대한 마오의 신임과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저우언라이 총리도 강생(康生, 1898-1975)과 류보청(刘伯承, 1892-1986) 동지도 모두 병상에 있습니다. 나는 올해 82세이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다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석한 덩샤오핑을 가리키며) 정치에 대해서는 저 사람과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는 어떻게 전투를 치를 지도, 수정주의에 맞서 싸울 지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홍위병들에게 숙청 당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복권되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에 대한 마오쩌둥의 신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결정적 계기는 조카 마오위안신(毛远新, 1941-)의 보고였다. 즉, “덩이 문화대혁명의 성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류샤오치의 수정주의 노선에 대해서도 거의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보고를 거듭 접하게 되자, 원래 의심이 많고 병으로 쇠약해진 마오는 다시 덩샤오핑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 복권 초기에는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던 덩샤오핑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마오의 부인인 장칭을 대표로 하는 4인방 집단과의 토론 시에 자신의 견해를 보다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장칭의 과도한 트집과 비판에 회답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적도 있었다. 문혁과정에서 파괴되고 돌출된 문제들을 바로 잡고 정돈하고자 하는 자신의 정책에 사사건건 트집 잡으려 드는 데에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오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진 3> 김일성을 접견하고 있는 마오쩌둥(1975. 4.18)

마오의 사후에 대비한 포석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한 것일 수도 있다. 결국 덩은 1975년 12월 정치국 회의에서 자아비판을 했고 대부분의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6년 1월에 투병중이던 저우언라이가 죽은 후, 그해 4월 5일 청명절에 저우언라이를 추모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 모인 인민 군중들이 점차 “저우언라이 총리 추모” 외에 “옹호 덩샤오핑, 반대 4인방” 구호를 내걸고 가열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장칭과 마오위안신은 병으로 기력이 쇠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병상의 마오에게 사

건의 배후에 덩샤오핑이 있다고 거듭 보고를 했고, 마오쩌둥은 병상에 누운 체로 알아듣기조차 힘든 어투로 “덩샤오핑의 모든 직위와 직무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마오쩌둥의 죽음

1976년 4월, 병상에서 덩샤오핑의 모든 직무를 박탈하라고 지시한 마오쩌둥은 결국 그해 9월 9일에 죽었다. 마오가 죽은 그해에는 중국 대륙에 유난히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1월 8일에는 저우언라이(周恩来)가 죽었고, 4월 5일 청명절에는 저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천안문에 모인 군중들이 결국 4인방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군중성 시위를 벌였고, 4인방은 덩샤오핑이 그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음모자라고 모함했고, 마오는 두번째로 덩의 모든 직무를 박탈했다. 그리고 다시 7월 6일에는 주더(朱德)가 죽었다.

그 무렵 중국 대륙에는 유난히 큰 재앙과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저우언라이가 죽기 전 5개월 전인 1975년 8월 4일부터 8일까지, 허난성(河南省) 주마디엔(驻马店)지구에서 사상 유례없는 대폭우가 내렸다. 하루 평균 최대 강수량 1631mm를 기록한 이 폭우는 화이허(淮河) 상류에 대홍수를 발생시켰고, 대형 수원지내의 수십 개의 수원지 독을 만수위에서 붕괴시켰다. 농경지 1100만 무(亩)³⁾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2만 6천명 이상이 사망했다.⁴⁾ 수원지 독 붕괴로 인한 재난중 세계 최대규모의 참극이었다.

주더가 죽기 3개월 전인 1976년 3월 8일에는, 지린성(吉林省)에서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운석비(隕石雨)가 내렸다. 마오의 말년에 마오 곁에서 시중을 들던 명진원(孟锦云)은 당시에 마오가 이 사건에 보인 반응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고하고 있다.⁵⁾

1976년 4월 하순 어느날, 그날도 주석은 평상시처럼 침대위에서 반은 눕고 반은 기댄 채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날 신문을 넘기며 주석이 흥미있어 할 기사나 문장을 찾고 있었다.

주석이 피곤했는지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자세를 바꾸고, 나를 보며 진한 후난(湖南) 사투리 말투로 말했다.

“신문에 무슨 기사가 있나? 좀 들어 보자. 무슨 대비판의 성과니 하는 것 말고 뉴스를”

“그렇지 않아도 주석께서 책을 읽지 않을 때에 읽어 드리려고 표시해 둔 기사가 있어요”

“오, 한사람은 읽고 싶고, 한사람은 듣고 싶으니 잘 됐네, 읽어봐라”

3) 1무(亩): 666.67㎡=약 200坪

4)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수배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 명진원(孟锦云, 1948-)은 후베이성(湖北省) 출생이고, 어린시절부터 자태가 아름다웠다. 키가 훗칠하게 크고, 피부가 희고 곱고, 용모가 수려했다. 그녀는 12세에 공군정치가무단(空政歌舞团)에 들어 갔고, 1959년에 무도학생반(舞蹈学员班)에 선발되었다. 14세 나이 때에 중난하이에서 개최된 댄스파티에서 마오쩌둥의 눈에 띄어 마오의 전문 춤 파트너 역할을 했으나, 그후 문화혁명 발발한 후에 우여곡절로 수난을 당한 후 27세이던 1975년 5월에 중난하이로 마오쩌둥을 찾아가 자신의 당안기록 관련 역할을 호소하다가 마오의 권유로 마오의 신변 간호원 및 생활비서가 되어 마오와 그의 생애중 마지막 489일간 함께 했다.(郭金荣, 2009)

“신화사, 1976년 4월 21일 전송. 금년 3월 8일 오후, 우주공간의 한 유성이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으로 초당 10여km의 속도로 지구대기층으로 진입했고, 대기층과의 마찰로 인해서 연소, 발광하는 하나의 큰 불덩어리가 되어 지린(吉林)지구 상공을 날다가 8일 15시 1분 59초에 지린시 교외 진주공사(金珠公社)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운석(隕石)이 사방으로 땅으로 떨어졌다.”

여기까지 읽다가 보니 돌연 주석이 일어나 앉아 있었다. 보통은 내가 신문을 읽는 동안에 주석은 눕거나 앉은 자세의 동작을 바꾸는 일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신문을 놓고, 주석 곁으로 가서 무슨 일인가 물어 보려고 하자, 주석이 손짓으로 제지하며 말했다.

“계속 읽어라, 듣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읽어 내려 갔다.

“운석중 제일 큰 것 세 덩어리가 원래의 비행방향인 서남쪽 방향으로 계속 날아갔고..., 마지막 한 덩어리가 15시 2분 36초 땅에 떨어질 때, 1.7미터 두께의 동토층을 뚫고 지하 6.5미터 깊이까지 들어 가면서, 지면에 깊이 3미터, 직경 2미터가 넘는 큰 구덩이를 만들었다. 당시 떠오른 흙더미 높이가 수십 미터였고, 흙덩어리가 100미터 이상 날아갔다. 세 덩어리의 운석의 무게는 100kg을 넘었고, 가장 큰 것의 무게는 1770kg으로, 미국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대 운석의 무게(1078kg)보다 훨씬 크다. 이 운석비는 수량은 물론, 떨어진 범위, 각 운석의 무게 등 모두 세계에서 보기도 드문 것이다.”

내가 이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이어서 또 다른 기사를 읽으려 하자, 주석이 “됐어, 더 읽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슬리퍼를 신었다. 내가 다가가서 부축하자, 천천히 창가로 갔다.

주석의 얼굴에는 일종의 걱정, 불안, 격동이 있는 듯이 보였다. 주석이 내게 창문 커튼을 열어젖히라고 말했다. 이 또한 매우 드문 일이었다. 주석은 창가에 서서, 매우 오랫동안 석양이 점차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주석의 곁에서, “주석, 어떻게 하늘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운석이 떨어질 수 있나요?



<사진 4> 마오쩌둥과 멩진원

다친 사람이 없는 것도 신기해요”

주석이 생각에 잠긴 체로 대답했다.

“이 같은 일은 역사상 드문 일이 아니다. 역사에 기록된 것도 적지 않고, 야사에는 더욱 많다.”

주석은 약간 흥분한 듯 또는 매우 흥미 있다는 표정이었고, 잠시 후, 주석이 내게 물었다.

“이 방면의 기록을 본 적 있느냐?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들 말하더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 방면에 대한 기록을 본 적 없어요.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언젠가 어느날 밤에 우리 고향 마을에 큰 돌이 떨어졌는 데, 그후에 이 돌이 바람에 날려 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믿지 않아요”

“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 넌 믿지 않는다고?”

“저는 안 믿어요. 주석은 믿을 수 있어요?”

잠시 후 주석이 말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움직이고,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지면, 바로 사람이 죽는거지. 삼국지의 제갈량, 조운이 죽을 때에도 돌이 떨어지고, 깃발이 부러졌지. 큰 인물은 죽을 때도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이 말을 하는 동안, 주석은 약간의 감회와 흥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주더의 죽음 후 22일 지난 1976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에는 “탕산(唐山) 대지진”이 발생했다. 허베이성(河北省) 탕산과 평난(丰南) 일대에 진도 7.8도, 진원 심도 12km의 강진이 발생하여, 신흥중공업 항구도시 탕산은 폐허로 변했다. 지진피해 지역 범위가 약 21만여km²였고, 사망자 24만여명, 중상자가 16만여명에 달했다.⁶⁾ 잇달은 자연재해와 옛 동지들의 죽음은 고령으로 갈수록 기력이 쇠잔해지던 마오쩌둥을 더욱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해9월 9일에 마오쩌둥도 죽었다.



<사진 5> 말년의 마오쩌둥

[마오쩌둥 생애 마지막 생일]

마오쩌둥 생애 최후의 생일은 1975년 12월 26일이었다. 문화혁명 이후 개인 숭배가 극에 달하던 때여서, 매년 마오의 생일날에는 중국 대륙의 모든 인민들, 남녀노소, 모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있었고, 모든 가정과 직장단위에서 점심식사는 “장수면”을 먹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다.

마오의 고향 후난성에서는, 국수 면발 길이 10m나 되는 “장수면”을 타원형으로 상자 안에 넣어 포장해서, 축하폭죽불꽃(礼花)과 함께 보내 왔고, 나라 밖의 중국과 우호관계를

6) 2008년 5월 12일, 쓰촨성(四川省) 두장옌(都江堰), 원촨(汶川)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은 진도가 탕산대지진(7.8도) 보다 큰 8.0의 강진으로, 사망 및 실종 약 8만6천명, 부상자 약 37만명으로 추산되었다.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축하인사와 선물을 보내 왔다. 특히 조선전쟁 시 마오쩌둥의 구원 덕에 구사일생 살아 남은 북조선의 김일성은 매년 마오의 생일에 특사를 파견하고 생일선물을 보냈다. 이해에는 특등품 사과를 보내왔다. 그외에 알바니아, 월남, 필리핀 등에서도 바나나, 망고 등의 과일을 포함한 각종 생일축하선물을 보내왔다.

이러한 선물들이 너무 많아서, 마오에게 실물을 보여주는 건 특별한 선물로 선정된 것들 뿐이다. 단지 말로만 보고하는 대상도 제한적이었다. 그외에 대부분은 보고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마오에게 보여주고 보고한 선물중 특히 과일같은 식품 종류는 대부분 마오의 신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서 나눠 먹어라, 나는 먹지도 못하는 데 이렇게 두면 낭비다.”

김일성이 보낸 조선 사과를 매우 컸고, 원형 대나무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다. 대나무 바구니의 빨간색 손잡이 위에 김일성이 친필로 쓴 “마오쩌둥 주석의 장수를 축원합니다”라는 뜻의 조선글자(한글)가 씌여 있었다.

멍진원이 김일성이 보낸 사과가 담긴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마오쩌둥 앞으로 들고 가자, 마오가 덮개를 열고 빨갛고 큰 사과 하나를 꺼내어 자신의 손에 쥐고 어루만졌다. 이렇게 큰 사과는 정말 보기 드문 것이었다. 마오는 이 사과가 조선땅에서 자랐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 국민당 군에 처형된 첫째 아내 양카이후이(楊開慧) 옆에서 “엄마, 엄마” 부르며 울고 있는 자신의 큰아들 마오안잉(毛岸英), 그 아들이 묻혀 있는 조선땅…… 평소에도 마오는 조선에서 오는 모든 소식을 접할 때 마다. 심지어는 조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매번 특별한 감상에 젖는 듯이 보였다.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이 사과는 두개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나눠서 먹어라” (郭金榮, 2009)

참고문헌

- 알렉산더 V. 판초프외. 유희복 옮김(2018), 『설계자 덩샤오핑』, 알마출판사
 알렉산더 판초프외. 심규호 외 옮김(2017), 『마오쩌둥 평전』, 민음사
 프랑크 디괴터·고기탁 옮김(2017), 『문화대혁명, 중국 인민의 역사 1962-76』, 열린책들
 에즈라보걸. 심규호, 유소영 옮김(2014), 『덩샤오핑 평전』, 민음사
 안치영(2013), 『덩샤오핑 시대의 탄생』, 창비
 왕단·송인재역(2013), 『왕단의 중국현대사』, 동아시아
 전리군(陳利群)·연광석 옮김(2012), 『모택동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상,하』, 한울아카데미
 마리-클레르 베르제르·박상수 옮김(2009), 『중국현대사』, 심산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옮김(2004),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2』, 이산
 郭金榮 (2009), 『走进毛泽东的最后岁月』, 中共党史出版社
 张涛之 (1998), 『中华人民共和国演义(上、中、下卷)』, 作家出版社
 毛毛 (1997), 『我的父亲邓小平』, 中央文献出版社
 薄一波 (1993),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上下卷』, 中共中央党校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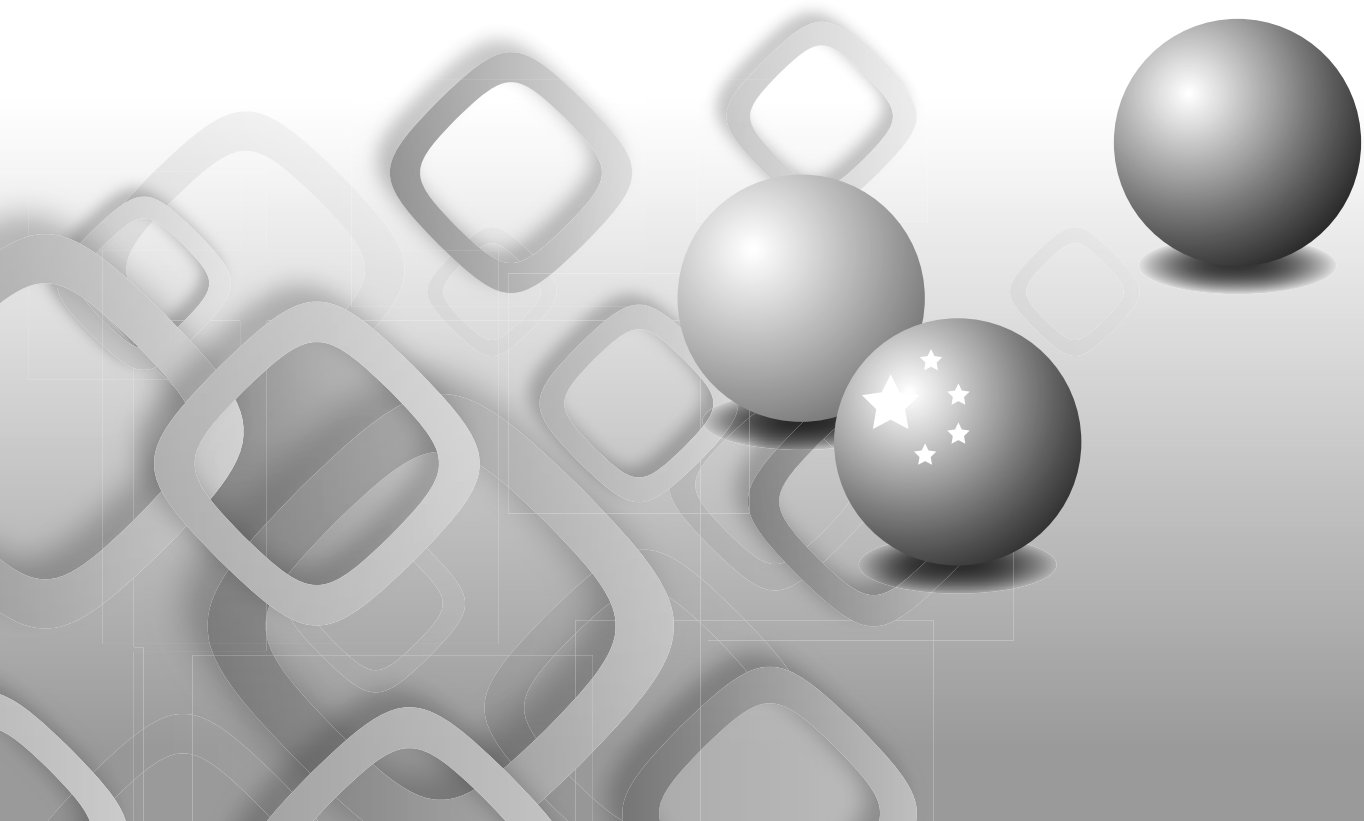


6.

보령 유격장군 청덕비와 명나라 장군 계금(季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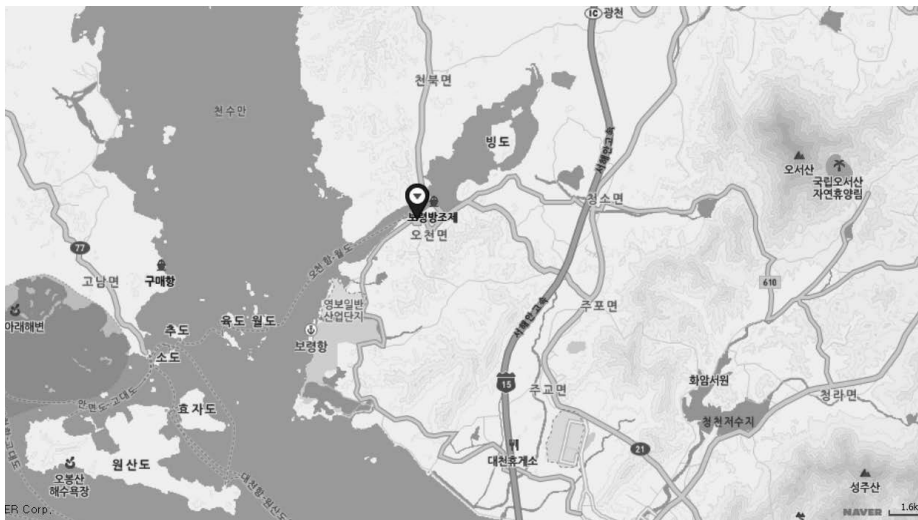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조선시대에 세워진 보령 유격장군 청덕비(保寧 遊擊將軍 淸德碑)

보령 유격장군 청덕비(保寧遊擊將軍淸德碑)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오천초등학교 내에 자리하고 있다. 2000년 9월 20일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159호로 지정된 이 비석은 조선 시대인 1598년(선조 31) 4월에 세워졌다. 비신(碑身)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높이 104cm이다. 비석의 머릿돌인 이수(額)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고, 지붕받침은 생략되어 있으며 조각도 용트림 대신 구름무늬를 넣었다. 구름무늬는 앞면에 7개, 옆면에 2개가 새겨져 있다. 제액(題額)은 반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글씨가 없다. 비문(碑文)은 앞면과 뒷면에 씌어 있다. 앞면에는 비명(碑名)과 주요 참모들의 성명이 있고 뒷면에는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임진왜란 때 중국 명(明)나라 수군(水軍) 3,000여 명이 오천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사실과 장수인 유격장군을 숭배하여 바다에서의 안녕과 집안의 복을 빌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



<그림> 보령 유격장군 청덕비 위치도

자료: 네이버 지도

유격장군 계금(季金)은 중국 명나라 절강성(浙江省)의 수군장

유격장군(遊擊將軍)은 근세 중국의 군인 계급을 지칭하는 말로 보령의 유격장군 청덕비에서의 유격장군은 계금(季金)을 지칭한다. 유격장군은 근세 명나라의 위소제와 청나라의 녹영제에도 나타나는데 이때는 참장과 도사의 사이 계급이었다. 명나라 초에는 군대 편제에 따라 현재의 기동여단장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으나 명나라 말에 다시 군제가 재편되었을 때는 현재의 기병대 대장으로 바뀌어 통솔하는 군사의 수가 크게 줄었다. 유격장군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 종5

1) 네이버 지식백과_「보령 유격장군 청덕비(保寧遊擊將軍淸德碑)」(두산백과) 참고

품 무관 관직이었으며 위로는 요무장군, 아래로는 유기장군이 존재했다.²⁾

유격장군 계급은 중국 명나라 절강성(浙江省)의 수군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3000명의 수군을 이끌고 충청지역 수영(水營)이었던 보령 오천으로 상륙한 후 전라도로 이동해 왜군을 토벌하였다. 이 때문에 유격장군 청덕비에는 장군의 덕을 칭송하고 왜적을 빨리 무찌르기를 기원하였으며 장군의 위업을 빌려 바다에서의 안녕을 기도하자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창덕비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수군이 상륙한 지점을 알려주고 당시의 민속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이 비문은 당시 승문원 교리 안대진(安大進)이 지었다.³⁾ 유격장군 창덕비, 다시 말해 계금장군 창덕비는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조선에 출병했던 명나라 장수 중 유일한 공덕비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보령 유격대장 청덕비의 앞면(좌), 뒷면(우)

자료: 보령군청 홈페이지

노량대첩에도 참전한 계금장군

계금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등장한 인물로 1588년 11월 노량대첩에 참전했으며,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으로 임진왜란이 종결된 후에도 곧바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 진영인 보령 오천의 충청수영성으로 돌아왔다가 1599년 4월 명나라로 귀환했다.⁴⁾

2) 위키백과 「유격장군」 참고

3)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령유격장군청덕비」 참고

4) 대전일보(2015. 8. 14). 계금장군 발자취 따라 보령찾은 후손들.

계금장군 청덕비의 비문을 처음으로 해독한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노승석 대우교수의 글에 따르면, 계금장군은 전쟁을 치르는 중 부하장수를 잘 보살피고 고을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다고 한다. 또한 비문에는 계금장군이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일어 많은 배가 침몰하자 조선의 사공 중 물에 젖어 옷이 언 자를 보고 자신의 옷을 벗어 입혀줄 정도로 인덕이 많았고 어린 아이 일지라도 속이지 않는 청렴함을 지녔다고 한다.⁵⁾ 계금장군은 전투에도 유능한 장수였지만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인덕이 고매한 장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 역사교류를 잇는 계금장군

계금장군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 조선을 잠깐 다녀간 장군으로만 그치지 않고 있다. 계금장군의 후손과 그를 기억하는 각계 인사들이 계금장군을 통해 한중 역사교류를 잇고 있다.

보령문화연구회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전체 34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2009년 2월 20일에 계금장군의 고향인 중국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의 현급시인 윈링시(溫嶺市) 송먼진(松門鎮)을 방문했다. 송먼진 방문 시 그곳 진정부에서 연구회 회원들을 적극 환대했고 계금장군의 후손들도 함께 참석해 방문단을 맞아주었다. 이후 상위기관인 타이저우시에도 방문해 그곳 시정부와 계금장군이 출항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두를 답사하기도 했다.⁶⁾

이후 반대로 계금장군의 후손들이 보령시를 찾기도 했다. 계금장군의 후손들은 2015년 8월 13일에 순천향대 박현규 교수, 보령문화연구회와 연결되어 보령시를 방문했다. 그들은 비문을 작성한 안대진 선생 후손과 함께 오천에 있는 계금장군 청덕비와 웅천읍 황교리에 위치한 안대진 선생의 묘를 답사하기도 했다.⁷⁾



보령문화연구원 대표단 계금장군 고향 방문
자료: 다음블로그_구슬외침터



보령시를 방문한 계금장군 후손
자료: 대전투데이(2015. 08. 17)

<그림 2> 계금장군을 매개로 한 한·중 문화교류

5) 뉴시스(2008. 03. 19).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명(明)' 계금장군 청덕비' 첫 해독.

6) 다음블로그_구슬외침터: 계금장군의 고향을 찾아서_ <http://blog.daum.net/ikhyuk/7352720>

7) 신아일보(2015. 8. 16). 명나라 계금장군 후손 보령 방문.

역사 인물 발굴을 통한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보령에는 계금장군 이외에도 외연도에 전횡(田橫)장군 사당이 있다. 한 고조 유방(기원전 274~195)과 동시대에 활약한 춘추 전국시대의 인물인 전횡장군과 그를 따라 자결한 500명의 신하를 기리는 사당이기도 하다. 또한 서천군 장항읍의 기벌포에는 당나라 장수로 통일신라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설인귀(薛仁貴)의 고사가 남아있고, 부여와 공주에는 백제를 패망시킨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의 흔적이 남아있다. 근대 개화기에 와서는 조선이 혼란한 틈을 타서 원세개 등이 주도하는 청군(靑軍)이 아산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기도 했다.

이처럼 충남도는 예로부터 중국과 가깝고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중국 군대의 침략의 대상지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양국 간 우호 협력의 대상지이기도 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동아시아가 환황해를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전횡장군, 설인귀, 소정방, 계금장군 등 역사인물들을 통해 부침이 많았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가를 초월한 우호와 협력이 이뤄져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_「보령 유격장군 청덕비(保寧遊擊將軍淸德碑)」(두산백과)
 뉴시스(2008. 03. 19).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명(明)' 계금장군 청덕비' 첫 해독.
 다음블로그_구슬뽀침터: 계금장군의 고향을 찾아서_<http://blog.daum.net/ikhyuk/7352720>
 대전일보(2015. 8. 14). 계금장군 발자취 따라 보령 찾은 후손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_「보령유격장군청덕비」
 신아일보(2015. 8. 16). 명나라 계금장군 후손 보령 방문.
 위키백과_「유격장군」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35·36회
충청중국포럼**

제35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한국 청년들의 중국창업전략 _ 중국 4차산업혁명에 맞춰라’

- 제35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10월 24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영화 前 과기정통부 글로벌혁신센터장이 “한국 청년들의 중국창업전략 - 중국4차산업혁명에 맞춰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림1> 제35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과 고영화 센터장 발표 사진

- 고 前 센터장은 중국은 덩샤오핑의 경제발전 3단계 정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미국의 GDP를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유효공급확대를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인터넷+ 전략”을 내놨다고 전하면서, 그 중 “인터넷+ 전략”은 인터넷과 다른 산업을 접목한 신규업종 육성, 인터넷을 활용한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등을 실현하여 2025년에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 또한, 고영화 센터장은 2017년 과학기술부가 발표했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및 기술프로젝트”와 중국 AI산업을 이끌어가는 “BAT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 이어서 중국 모바일 페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뤘는데 고 센터장의 설명에 의하면, 2017년 12월까지 중국 온라인결제 사용자 규모는 5.31억 명으로 2016년 12월보다 5,561만 명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이러한 중국의 급격한 환경 변화 하에 작년에만 총 607만 개 기업, 하루에 약 1만6600개 기업이 창업할 정도로 중국 청년들의 창업 열풍은 대단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앞으로도 “인터넷+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민간주도 창업 열풍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 오포(OFO)자전거, 어러머(餓了麼)음식배달서비스, DJI드론카메라 등 중국 대학생 창업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주는 사업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소위 중국 BAT로 일컬어지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3대 기업 성공 신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우, ‘전 세계기업 시가총액(2017.12.31기준)’ 순위권에 들어있지만, 한국기업들은 순위권 밖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스타트업기업의 수는 121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동안 ‘0’개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는 ‘라인(LINE)’은 일본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라인도 일본에서 시작했기에 오늘의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고 하면서 글로벌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고 센터장은 강연 말미에 중국에서의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중국 전문가 10만 명 양성, 중국 내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확대, 국내 투자금융사 중국진출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국시장에 바로 진출해서 창업하거나, 중국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조기에 찾아내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강연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 김은숙 전문위원은 최근 충남도에서도 중국창업 플랫폼을 활용한 도내 청년들의 중국진출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말하였다. 향후 KIC센터가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여타 정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충남 청년들의 대중국 창업을 도모해보겠다 말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제36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지방 공무원이 본 지방 공공외교 발전방안’

- 제36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11월 28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 공무원이 본 지방 공공외교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논산시와 보령시의 국제교류 사례를 발표하고 시군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논산시와 보령시는 충남 시·군 중 나름 특색 있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논산시의 경우,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령시는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강화를 통해 보령시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림1> 제36회 충청중국포럼 발표 및 기념 사진

- 논산시 국제교류팀 김관기 팀장은 ‘논산시 국제교류 현황 및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관기 팀장은 국제교류팀을 맡은 지 3년이 되었으며 현재 팀에는 영어권 담당, 중화권 담당, 일본어권 담당이 있어 안정적으로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 논산시는 총 5개국 8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추진 중이며, 공공외교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 또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중·고등학생 해외연수는 중소도시인 논산시가 문화적, 교육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세계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논산시는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특히,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해외연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의 중국 상하이 해외연수를 시작으로 올해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 일본 오사카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은 중국 상하이로 다녀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교육적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연수 후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 보령시 대외협력팀 최철구 팀장은 국제교류업무를 비교적 오랫동안 맡아온 다소 특이한 케이스이다. 전에도 약 7년간 국제교류업무를 맡은 적 있고, 2015년부터는 본인 의지로 다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보령시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상하이 청포구, 톈진시 빈해신구는 교류 중에 있고 최근에는 우한 마성시와 사전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최팀장은 중국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지역특산품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면서, 올 11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수입품박람회가 개최되었는데 박람회 기간에 상하이 청포구의 지원으로 보령시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새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마성시는 내륙 도시인데, 그래서 해안도시인 보령시의 김이나 해삼 등 제품의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하였다.
- 최팀장은 국제교류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면서 느낀 점으로 중국과 같이 관시(關係)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와의 교류에 있어서 순환보직체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 강연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는 논산시의 중·고등학생 해외연수는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하고 홍보해 우수사례로 알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또 보령시에서 한중친선협회를 조직하여 지역내에서 모임을 결성해 논의해가고 있는 것은 아주 훌륭하며 향후 도 차원에서도 관과 기업, 민간단체들이 함께 논의하는 모임을 조직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경철 박사는 논산시의 사례는 책으로 출판하는 것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면서 논산시가 유교문화와 더불어 쉼터인랜드까지 주목을 받고 있어 앞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송두범 단장은 논산시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교육청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시단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으면서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해외연수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해나가면서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수준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8.12)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제19호	2018년 5·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0호	2018년 7·8월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1호	2018년 9·10월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무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제22호	2018년 11·12월	시도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현황 분석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